

일상의 에너지를
새롭게 재충전하는



교정공무원만의
올바른 휴식 방법

Re: Fresh

휴식으로 채우는 새로운 에너지

휴식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휴식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월간 <교정> 8월호에서는 올바른 휴식이란 무엇인지 교정공무원의 생각을 담았습니다.



C O N T E N T S

Re:member

- 04 **교정 이모저모**
백종원 사단이 차린 중복의 '맛있는 건강'
- 08 **역사와 오늘**
공주교도소
- 16 **생각의 접점**
꾸준한 전진을 위한 '잠시 멈춤'
공주교도소
- 18 **응원의 선물**
출소 후 새로운 인생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다
공주교도소 직업훈련과
- 22 **묻고 답하다**
활기찬 내일을 만드는 오늘의 알찬 휴식
공주교도소 교위 임진철 & 교도 이종민
- 26 **교정의 가치**
믿음으로 환히 밝히는 수용자들의 세상
공주교도소 교정위원 최영호
- 28 **취미의 공유**
랜선 도서관 '사월이네 북리뷰'
책 읽어주는 유튜버 라이프
인천구치소 교위 김규범
- 32 **전문가에게 묻다**
우아하게 Swing, 짜릿하게 Strike!
볼링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다
서울동부구치소 교사 정미나 & 프로볼링 선수 지은솔
- 36 **나도 패션왕**
패션은 산뜻하게 도전은 과감하게
순천교도소 교위 최상철
- 40 **교정 안에서**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용서를 구합니다
- 42 **교정의 일기**
자전거는 사랑을 신고
홍성교도소 교위 정우성

f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교도소24시
카카오토리 story.kakao.com/ch/mojcor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mind

- 44 **여행 속 휴식**
산책하기 좋은 야경 명소
눈부시거나 황홀하거나
- 48 **문화가 중계**
장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담아낸
드라마들
- 50 **맛의 탐방**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식문화
물회
- 52 **교정 리포트**
교정공무원의 직업소명의식 생성과
발달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퇴직 여성 교정공무원 사례 연구②
- 58 **교정 NEWS**
- 65 **모범 공무원**
- 66 **독자 마당**

※ 모든 촬영은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월간 교정 2022년 08월호 Vol.555

발행인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2년 08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교정본부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월간 <교정>은 웹진(cowebzine.com)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백종원 사단이 차린 중복의 '맛있는 건강'

경북북부제2교도소

글 김진우 사진 봉재석 사진제공 tv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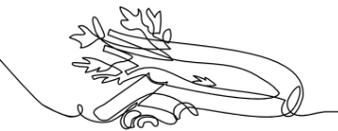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찾아온 '맛잘알' 요리사들

매미가 요란한 울음소리로 한여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던 지난 7월 26일, tvN 예능 프로그램 <백패커> 제작진이 30℃가 넘는 무더위를 뚫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의 문을 두드렸다. <백패커>는 백종원·오대환·안보현·딘딘으로 구성된 '맛잘알(맛을 잘 아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 출장 요리사'들이 시청자의 의뢰를 받은 곳으로 직접 가서 현장의 상황에 맞춘 즉석요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경북북부제2교도소 보안과 김도년 교감의 의뢰를 받은 제작진과 출연진이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공무원 20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것이다.



거대한 식재료 배낭을 짊어진 백종원 사단이 경북 청송에 나타났다. 무더위와 교정교화 활동으로 고생하는 200여 명의 교정공무원에게 손수 차린 고단백·고열량의 점심 식사를 선물하기 위해 tvN 예능 프로그램 <백패커> 제작진과 함께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찾아온 것. 덕분에 교정공무원들은 맛있고 건강한 중복의 추억을 맛볼 수 있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중정비 교정시설로서, 이곳의 교정공무원들은 엄정한 범죄자 확립과 철저한 수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345명을 수용한 뒤 두 달 만에 전원 완치시켜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렇듯 굵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껏 최선을 다해 온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공무원들에게 백종원 사단이 손수 조리한 특식은 특별한 추억과 맛있는 건강은 물론 앞으로 교정교화 활동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터였다.

<백패커> 출장을 의뢰한 김도년 교감이 오전 6시 30분쯤 도착한 출연진을 반갑게 맞이했다. 김 교감이 백종원 사단에게 부탁한 요리는 고단백·고열량의 여름 보양식.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밤낮 없이 땀 흘리는 동료 교정공무원들을 생각해 세심하게 정한 요리 주제였다. 김 교감을 통해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대한 소개와 교정공무원들의 고충을 들은 출연진의 얼굴에 진지함이 가득 들어찼다. 매마침 촬영일도 중복이었던 만큼, 교정공무원들에게 강한 기운을 북돋아 줄 한 상을 차려 내겠다는 굳은 각오가 담긴 표정이었다.

<백패커>와 함께 만든 특별한 중복

7시경 직원식당에 들어선 출연진은 직원 급양을 담당하는 복지와 박재우 교사의 안내를 받아 각종 요리도구와 부식창고를 점검했다. 백종원의 빠른 상황 판단에 따라 이날의 점심 메뉴는 트리플로제 닭볶음탕, 돼지고추장찌개, 감자어묵볶음, 돈육버섯밥으로 결정됐다. 처음 마주하는 조리 상황에 당황할 법도 하건만, 이미 여러 차례 손발을 맞춰 온 출연진은 백종원의 진두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10시 40분에 배식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니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네 시간 남짓.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는 '요리 전투'가 순식간에 곳곳에서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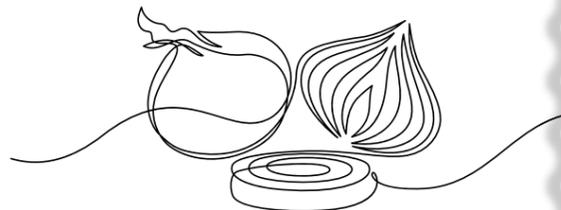
<백패커>는 현장 상황에 맞춘 요리를 한다는 프로그램 콘셉트상 촬영 당일까지 정해진 메뉴가 따로 없다. 그러다 보니 의외인의 요리 주제와 현장의 조리 도구 및 식재료들을 잘 맞춰 최상의 요리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제작진 또한 매번 조리 공간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로 현장을 지켜보며 가슴을 졸인다고. 이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게 <백패커> 메인 작가의 설명이다.

어느덧 주어진 조리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이게 다 될까?' 싶었던 요리들이 마법처럼 배식대를 가득 채웠다. 출연진은 직접 배식에도 나섰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교정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맛과 영양이 가득한 음식을 출연진에게 직접 받은 교정공무원들은 아이처럼 좋아하며 백종원 사단의 정성과 요리의 깊은 맛을 마음껏 즐겼다.

촬영 말미, <백패커>의 메인 작가는 현장에서 지켜본 교정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존경과 고마움을 표하며 이날의 음식이 앞으로의 교정교화 활동에 대한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리부터 배식까지 치열한 다섯 시간을 보낸 출연진도 교정공무원들에게 위안과 추억을 선물했다는 뿌듯함을 가득 품고 기분 좋게 보안과 정문을 나섰다. 경북북부제2교도소의 그 어느 때보다 특별했던 중복은 이렇듯 훈훈하고 든든하게 마무리됐다.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백패커>는 8월 18일(13회차) 방송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백패커> 참여 교정공무원의 생생 촬영 후기



정년퇴직 전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보안과 교감 김도년

Q <백패커>에 출장 의뢰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내년 6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빼놓고는 교정공무원으로 일한 지난 33년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1992년 12월 교도소 개청을 지원했고, 교사·교위·교감 승진을 모두 이곳에서 했죠. 20여 년 동안 몸담으며 큰 애정을 쏟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의 동료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Q 오늘 어떤 촬영을 하셨나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도착한 출연진을 맞이하고 교도소 소개, 보안사항 교육, 식당 안내 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출장 의뢰자로서 인터뷰도 진행했는데요. 교정공무원들의 고충과 노력 등 많은 말을 준비했는데 긴장한 탓에 준비한 대로 인터뷰하지 못해 아쉽네요. 그래도 경북북부제2교도소와 동료들을 위한 제 진심만큼은 화면에 잘 담겼을 거라 믿습니다.

Q 출연진이 직접 만든 요리를 먹어본 소감이 궁금합니다.

무더위와 수용 관리에 지쳐 있을 교정공무원들을 위해 고단백·고열량 보양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는데요. 낮은 조리 환경과 미비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요리한 출연진의 노고에 감동했습니다. 그만큼 맛도 꽤 깊고 진하더군요. 역시 '백종원은 백종원이다'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웃음)

Q 내년 6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데요. 전국의 교정공무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33년 동안 일한 제가 내린 결론은, 교정공무원은 사회의 안전과 수용자의 내일을 지키는 매우 중요하고 성스러운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정공무원들도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교정교화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한편으로는 오늘과 같은 이벤트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헌신적인 노고가 세상에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이상으로 보람 있었습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복지와 교사 박재우

Q 오늘 촬영에서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원 급양 담당이다 보니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조리 도구 정리, 직원식당 상황 점검 등을 미리 해뒀습니다. 출연진이 도착한 후에는 상황 안내 및 조리 도우미 역할을 맡았는데요. 대부분의 요리를 출연진이 직접 하셨지만, 그 사이에서 조금이나마 일손을 돕게 되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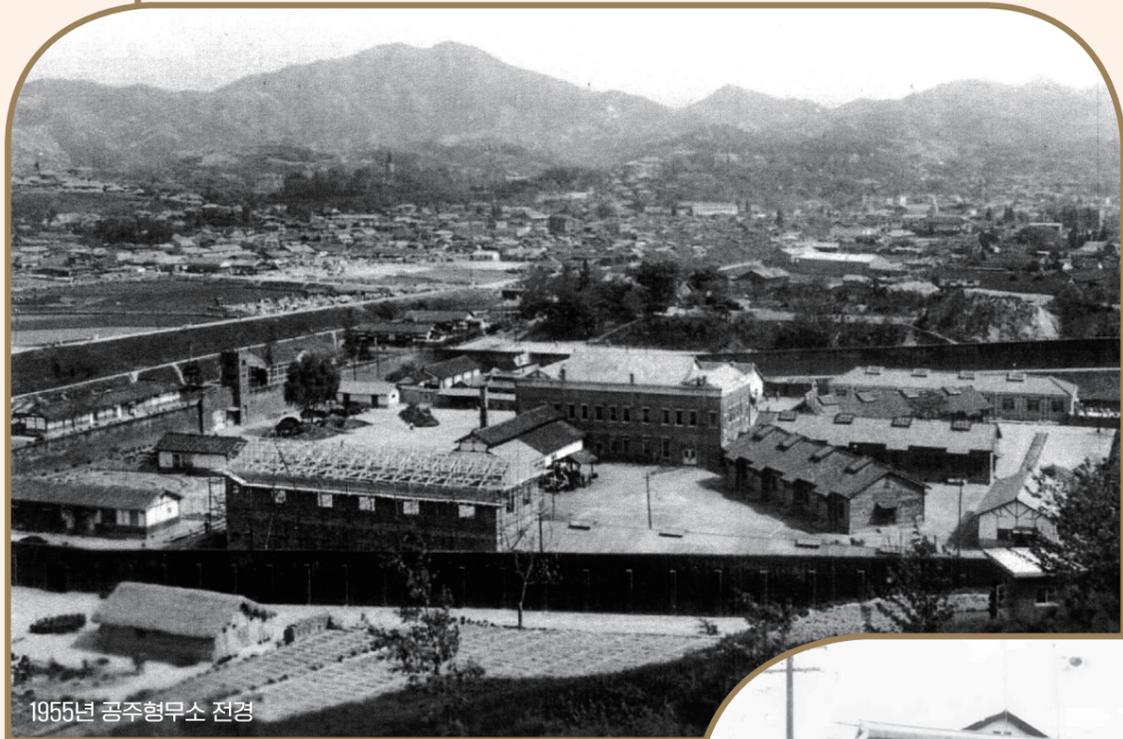
Q 촬영 중 기억에 남았던 일을 하나 소개해 주세요

오대환 씨와 함께 밥을 지으면서 교정공무원의 업무와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대환 씨도 교정공무원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교정공무원으로 일하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이미 직업적 자부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기운이 났습니다.

Q 촬영을 무사히 마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신경 써야 할 게 많다 보니 힘들긴 했지만, 그만큼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함께 일하는 선배와 동료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 드린 것 같아 뿌듯합니다. 직원 급양 담당으로서 점점 더 맛있는 밥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앞으로 넓은 아량과 배려로 직원식당을 바라봐 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법질서 확립과 수용자 인권 보장으로 건강한 수용 여건을 제공하는 공주교도소



1955년 공주형무소 전경



1960년대 공주형무소 보안청사

백제의 고도(古都) 공주에 위치한 교정기관, 공주교도소

공주교도소는 1908년 공주감옥으로 개칭했으며,
1950년 6·25전쟁으로 공주형무소가 전소되는 등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후 1978년 현재 위치로 이전해 110년이 넘는 역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수용자 교정교화를 통해
건강한 국민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1910년대 공주관업원 작업 모습

“
인성 교육, 직업 훈련 등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합니다.
”



1910년대 공주감옥 수용동



1980년대 벽화헌정식



수용자 및 대체복무요원 처우 개선에 앞장서는 공주교도소

공주교도소는 수용자 인권 존중 및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 만남의 집 등을 운영하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생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999년 수용자 추계 체육대회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적극행정 실현

공주교도소는 민원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더욱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공주교도소는 열린 교정행정으로
수용자 체육대회, 효 실천 운동 등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9년 수용자 웅변대회



1999년 수용자 합동집견



안전한 수용 관리를 위한 다양한 훈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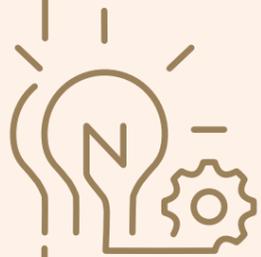
공주교도소는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용 관리를 위해
군경합동 훈련, 소방 훈련, 감염병 예방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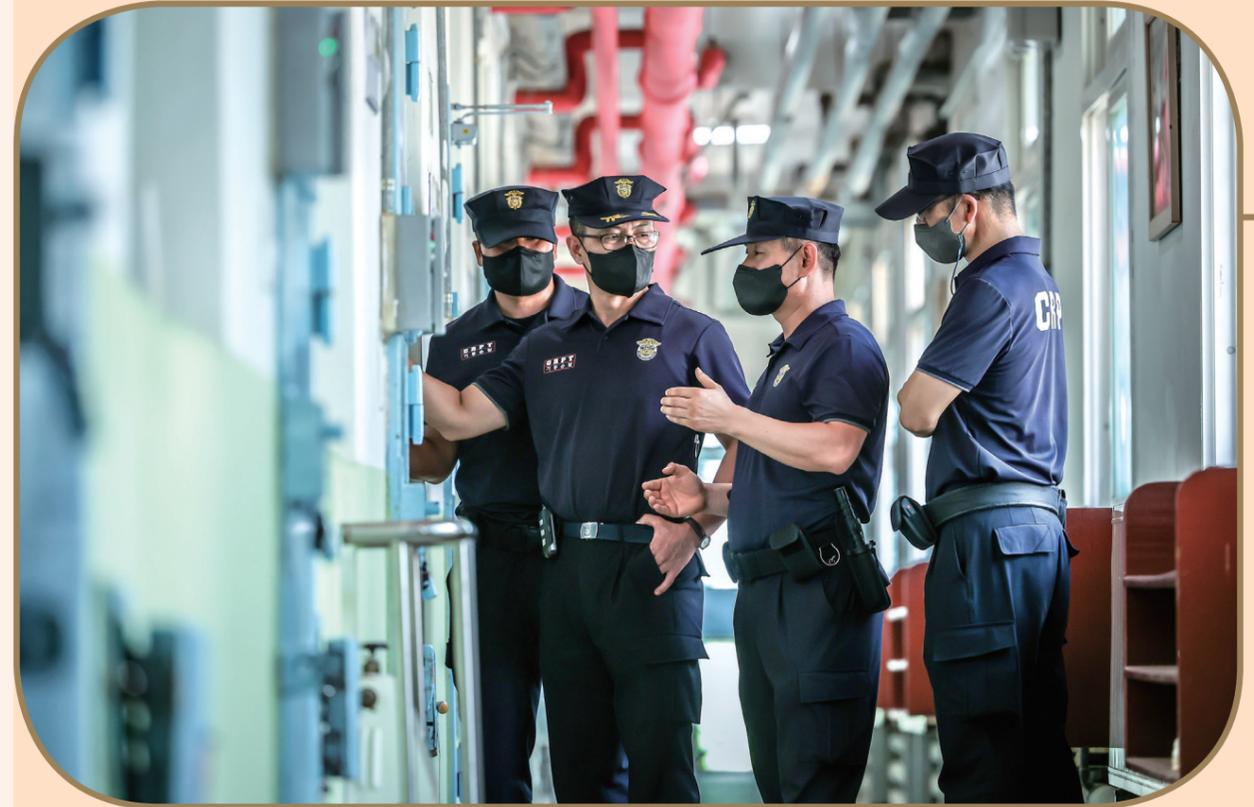
1977년 교동 초도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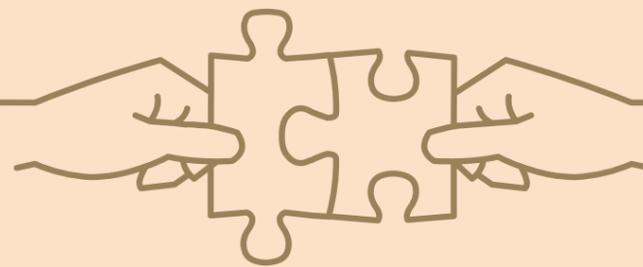
1970년대 지도원 훈련 모습



2010년 순회점검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 및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전진을 위한 '잠시 멈춤'

공주교도소



거칠어진 숨을 참고
계속 달리면 결국 쓰러진다.
꾸준하게 나아가려면 때때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골라야 하는 법.
공주교도소 교정공무원들이 꿈꾸는
'잠시 멈춤' 버튼은 무엇일까.

나의 여름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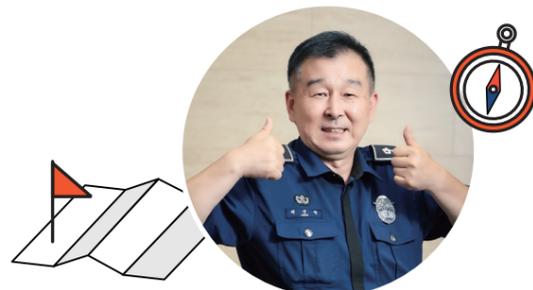
로망은 []이다.



'사찰 기행'

직업훈련과장 이정준

오래전부터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시름이 날아갑니다.
앞으로는 여름휴가 때마다 전국의 새로운 사찰을 찾아가
부처님께 인사드릴 생각입니다



'전국 일주'

교감 최정권

내년이면 정년퇴직을 하기에
사실 여름휴가에 대한 로망은 딱히 없습니다.
단지 퇴직 후에는 차를 끌고
전국 일주를 한번 해 보고 싶군요.



'배낭여행'

교감 이의환

20대 때 두세 달씩 해외의 유명한 도시에
찾아가 배낭여행을 즐겼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도 만났죠.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아내와 함께
배낭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자전거와 등산'

교위 정성군

누군가와 함께하는 휴가도 좋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힐링을 즐기는 것도 좋지요.
언젠가 한 번쯤은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와 등산으로
오롯이 여름휴가를 채워 보고 싶어요.



'차박'

교위 이방우

지금도 자동차 루프박스에
캠핑 용품을 넣어 다닐 만큼 차박을 좋아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조용한 곳에서
아내와 둘이 차박 힐링을 즐길 계획입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교위 강철

지금 아기가 10개월 차려 어딜 나가지 못하는데요.
몇 년 후 아이가 크면 가족과 함께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나기로 했어요.
한참 후의 일이지만 벌써 기대가 큼니다.



'가족 캠핑'

교위 이승규

애들이 다 커서 이제 가족여행을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전에 가족과 함께 조용한 야영장에서
하루 이틀 알차게 캠핑을 즐기다가
오고 싶습니다.



'트레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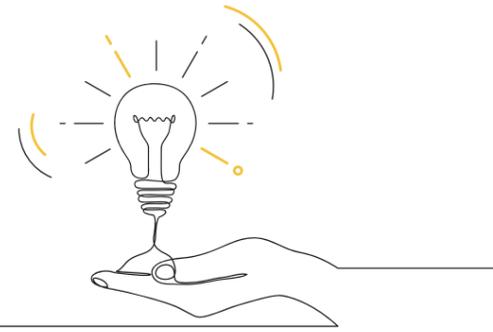
교사 한수연

태생적으로 걷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되면 국도 트레킹 혹은
제주도 올레길 트레킹을 다닐 생각입니다.
멍하니 걷다 보면 금세 머리가 맑아져서 좋아요.



출소 후 새로운 인생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다

공주교도소 직업훈련과



의식주가 제공되는 교도소에서 나온 출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터와 어느 정도의 정착금이다.

출소와 취업 사이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출소자가 범죄의 유혹을 느낄 확률이 높아지기에, 이는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주교도소 직업훈련과는 그 막중한 소임을 실현함으로써 출소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일’로 희망을 밝히는 사람들

세상 여기저기서 밥벌이의 힘겨움을 논하지만, 막상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이제 막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딘 출소자에게 일은 더욱 중요하다. 경제적 기반이 미비한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가 적절한 직업이 제때 구해지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교정 기관에서는 직업훈련과를 개설하고 수용자 직업훈련을 진행, 출소 후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정준 과장과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공주교도소 직업훈련과도 같은 소명을 부여받고 수용자의 바람직한 자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교도소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직영 작업장 4곳, 외부 업체에서 운영하되 교도소 내에 작업장을 두고 수용자들의 일손을 빌리는 위탁 작업장 8곳을 운영하며 수용자들에게 출역의 기회를 제공하고 출소 후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직영 작업장 중 고추장·된장·고춧가루를 생산하는 장류 작업장은 공주교도소에만 있으며, 전국 교정기관의 직원 및 수용자 식단에 장류 제품을 제공한다.

“통상적으로 1년에 2번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용자를 선발해 직업훈련교도소로 이송하는데, 생활 모범도·성향·적성 등을 두루 고려해 훈련생을 뽑습니다. 한편 출소가 임박한 수용자가 출소 직후 곧바로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요. 이외에도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 및 관리, 신제품 기획 생산 및 기존 제품 개선, 수용자 취업 상담 등의 업무도 두루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 모두 각자 맡은 작업장을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공주교도소의 멀티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죠.”

언제나 빛을 발하는 '명품 단합력'

직업훈련과 직원 개개인에게는 각자 주어진 고유 업무가 있지만, 서로의 도움을 수시로 받는다. 원자재 및 제품 상하차, 창고 정리 정돈 등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 직원들의 관계와 부서 분위기가 좋은 것은 당연지사. 취재 도중 봉제 작업장에 수용자용 이불솜이 들어 오자, 직원들이 서로 인터뷰 바통 터치를 해 가며 가까이 이불솜을 정리하러 가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작업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적도 많은데요. 유일하게 전국 교정기관에 장류 제품을 납품하는 장류 작업장만큼은 작업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역에 들어간 20여 명의 수용자 대신 저희 직원 대여섯 명이 작업

장에 투입돼서 장 담그기, 제품 포장, 원재료와 완제품 상하차까지 도맡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무척 고된 일이었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휴역 기간 중에도 전국 교정기관에 무사히 장류 제품을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직업훈련과의 강력한 단합력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죠.”

직업훈련과로 부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는 이의환 교감도 직업훈련과 특유의 밝은 분위기에 매료됐다. 출퇴근마다 서로 밝게 인사하는 모습,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내 일이 아니어도 당연한 듯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 작업장 관리·제품 생산·신제품 구상·제품 개선 등으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찾아 공유하는 모습 등이 참 보기 좋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워낙 손발이 잘 맞다 보니 어떤 직원이 사정으로 인해 연차를 쓰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그 직원이 맡고 있던 업무는 멈추지 않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그동안 함께 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이런저런 지식과 경험을 발휘해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어디선가 큰일이 생기면 전화 받을 직원 한 명만 남기고 모두가 우르르 현장으로 출동하는 직업훈련과에서 일하게 돼 행복합니다!(웃음)”



워낙 손발이 잘 맞다 보니 어떤 직원이 사정으로 인해 연차를 쓰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그 직원이 맡고 있던 업무는 멈추지 않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그동안 함께 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이런저런 지식과 경험을 발휘해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뜨거운 사명감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다

지난 4월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직업훈련과에서 관리하는 직영 작업장과 위탁 작업장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가득 들어왔다. 이후 지금까지 순조롭게 작업을 이어 나가고 있지만, 최근에는 긴장의 끈을 다시 팽팽하게 조이고 있다. 7월 들어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니 급기야 일일 확진자 수 10만 명대를 다시 돌파했기 때문이다. 특히 장류 작업장과 위탁 작업장의 경우 작업이 중단되면 전국 교정기관의 급식과 위탁 업체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직업훈련과 직원들은 현재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로 인해 각종 제품의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커다란 어려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업장의 제품 생산을 멈출 순 없기에, 급상승한 원자재 대신 비교적 값싼 대체 원자재를 찾고 적용하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수용자 직업훈련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일이다. 직업훈련과 직원들은 출역에 나서는 수용자들이 대외적 상황에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작업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외부 요인 때문에 수용자 직업 훈련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여러 측면에 걸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이런저런 일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직업훈련과 직원들에게 월간 <교정>이 준비한 선물은 큰 위로가 됐다. 공기청정기, 커피머신 등의 선물과 마주한 직원들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당면한 숙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서 수용자의 출소 후 인생에 보탬이 되는 직업훈련 활동을 더욱 폭넓게 펼치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MINI INTERVIEW

여러분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각 작업장에서 땀 흘리는 여러분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과 강한 단합력이 있습니다. 동료가 곁에 있다면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 가까이 손 내밀고 그 손을 붙잡는 우리 과의 훈훈한 분위기를 영원히 이어 나갑시다!”

직업훈련과 이정준 과장

활기찬 내일을 만드는 오늘의 알찬 휴식

공주교도소 교위 임진철 & 교도 이종민

이해와 배려로 한결 시원해진 여름



오래도록 열심히 일하려면 적절한 휴식이 중요하다. 하지만 어떻게 쉬어야 심신에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이제 막 교정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종민 교도 또한 정년퇴직까지의 기나긴 여정 속에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신만의 휴식법을 찾고 있다. 그가 임진철 교위에게 대화를 청한 이유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임진철 교위 — 오늘 해가 무척 뜨겁네요. 벌써 35도를 오르내리고 있으니, 8월과 9월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이종민 교도도 업무 적응에 정신이 없는데 역대급 무더위까지 겹치니 더 고생이 많겠어요.

이종민 교도 — 아닙니다, 교위님! 교위님과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생각보다 빠르게 교정공무원 생활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교위님의 도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죠. 참, 교위님께서 구해 주신 기능성 티셔츠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운동근무할 때 꼼짝없이 뜨거운 해를 맞아야 해서 무척 힘들었는데, 기능성 티셔츠 덕분에 한결 시원하게 업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임진철 교위 — 이 교도가 기능성 티셔츠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니, 구해 준 선배로서 무척 뿌듯하네요.(웃음) 이 교도가 올 4월 말에 공주교도소에 부임했으니, 벌써 교정공무원 4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네요. 지금껏 일해 본 소감이 어떤가요? 어떤 걸 더 도와주면 좋을지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말해 줘요.

이종민 교도 — 사실 생각보다 오랫동안 교정직 임용시험 준비를 한 뒤 30대 초반에야 어렵게 첫발을 내디뎠는데요. 그래서인지 일이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야 더 빨리 보안과 업무에 적응하고 한 사람 몫을 온전히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바랐던 일을 마침내 하게 된 셈이니,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교위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을 뵈 때마다 업무에 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는데, 모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내심 든든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공주교도소에 갓 부임했을 때 중앙통제실에서 교위님과 함께 근무를 했던 날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막 업무에 돌입한 터라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교위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친절하게 업무의 핵심에 대해 짚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자연스럽게 교위님을 모시게 됐어요.



임진철

교위

이종민

교도



**업무시간에는 최선을 다해 일하되
퇴근 후에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제대로 쉬어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하죠.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한두 가지 더 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몸과 정신의 건강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니까요.**

임진철 교위

**앞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서 즐겨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업무만큼이나 휴식도 서투니,
지금의 저에게 휴식은 연습인 셈이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서 휴식에도
능숙해져야겠어요.**

이종민 교도

휴식으로 마련하는 열정과 독심

임진철 교위 — 고민은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눠야 해결책이 나오는 법이죠. 이번엔 어떤 게 궁금해서 나를 찾아 왔나요? 편하게 말해 줘요. 18년 교정공무원 경력을 십분 살려서 조그만 실마리라도 건네 볼게요.

이종민 교도 — 제가 아무래도 오랫동안 교정직을 준비하다 보니, 업무만큼은 아니지만 휴식에도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수험생 때는 온종일 공부에만 매달리면 됐는데, 공주교도소에 부임한 뒤부터 업무 외적으로 남는 시간이 생기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다음날 더 활기차게 출근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임 교위님이 지난 19년 동안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 인가요?

임진철 교위 — 하나의 일을 지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죠. 이제 막 교정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상황이라서 정년퇴직까지의 오랜 기간을 어떻게 해야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내 경험에 비춰 보면, 일에 집중하는 것만큼이나 휴식에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업무시간에는 최선을 다해 일하되 퇴근 후에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제대로 쉬어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하죠. 이 교도는 요새 업무 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이종민 교도 — 사실 생전 처음 해 보는 일인데다가 손에 완전히 익지도 않아서, 그런 데서 오는 업무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해서 야간 근무 후에 바로 영화관에 가서 최신 영화를 많이 보고, 점심 먹을 때가 되면 공주의 맛집들을 찾아다니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이를 연속 쉬는 날에는 근처의 절에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하며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다스리기도 합니다.

임진철 교위 — 이미 좋은 휴식법을 여럿 갖고 있군요! 나는 시간이 될 때마다 구봉산 등산과 1만 보 걷기를 즐기고, 아내와 함께 예쁜 찻집이나 맛집을 다니는 걸 좋아해요. 이 교도의 휴식법에 대해 하나만 조언하자면,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한두 가지 더 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몸과 정신의 건강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니까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베테랑의 시간'

이종민 교도 — 결국 건전한 취미생활 중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즐기는 게 휴식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교위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서 즐겨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업무만큼이나 휴식도 서투니, 지금의 저에게 휴식은 연습인 셈이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서 휴식에도 능숙해져야겠어요.(웃음)

임진철 교위 — 지금과 같은 마음가짐, 참 좋아요. 인생은 한 번뿐이어서 누구나 낯선 일과 상황에서는 서툰 법이거든요. 진정성을 품고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능숙해지고, 언젠가는 후배들이 따르는 베테랑이 되는 것이죠. 이 교도도 좋은 생각과 자세를 갖추고 있으니, 머지않아 좋은 선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교도가 막 부임했을 때 나에게 고민을 털어놨던 일 기억하나요? 운동근무 때 형기가 긴 수용자가 이 교도를 깔보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며 무척 속상했죠. 그때도 비슷한 조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면 된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걱정은 하지 마라. 앞으로 꾸준하게 쌓일 지식과 경험,

노하우가 이 교도를 어떤 수용자도 깔볼 수 없는 교정공무원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말들을 기억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종민 교도 — 임 교위님은 혹시 지금껏 교정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회의감이나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임진철 교위 — 2004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이미 각기 다른 분야의 세 가지 직업을 경험해 봤는데요. 그런 제가 봤을 때 교정공무원만큼 만족스럽고 보람찬 직업이 또 없어요. 안 믿을지도 모르지만, 단 한 번도 교정공무원 생활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이 교도도 첫 직장이지만, 나의 경험담을 밑바탕 삼아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요.

이종민 교도 — 교위님 말씀을 들으니 어렵게 들어선 이 길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생깁니다.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도록 업무와 휴식 모든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환히 밝히는 수용자들의 세상

공주교도소 교정위원 최영호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젊은 시절 살기 위해 어렵고 거친 시기를 지나 왔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했다는 최영호 교정위원. 생명샘교회 담임목사이자 빛과 소금 선교회장인 그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굳은 종교적 신념으로 수용자들의 어두웠던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교정사역 목사로 거듭난 떡공장 사장님

최영호 교정위원의 청년기는 그야말로 좌충우돌이었다. 그 시절 누구나 그랬듯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안 해 본 일 없이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살았다. 덕분에 떡을 만들어 전국의 도매상에게 대량 납품하는 떡공장을 차릴 수 있었다. 사업이 여러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만난 종교는 때때로 흔들리던 그의 마음을 굳게 다잡아 줬고, 종교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바탕으로 다방면의 나눔 활동을 펼쳤다. 교정과의 오랜 인연도 이렇게 출발했다.

“빛과 소금 선교회 1대 회장이었던 김모세 목사가 어느 날 공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인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는데, 김 목사가 수용자들에게 빵을 나눠 주던 중 눈물을 흘리며 '내가 더해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가져온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 저에게 가 보라고 추천을 해 줬던 모양입니다. 저에게 와서는 수용자들에게 나눠 줄 떡을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하는데, 김 목사의 얼굴이 낮익더군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예전에 기도원에서 만나 비슷한 이야기를 한 번 나눴던 사이였죠. 그때부터 우리 공장에서 만든 떡을 수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의 일이니, 벌써 30년이 넘었군요.”

떡을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공장 특성상, 새벽에 떡 만드는 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다 보니 김 목사가 교도소에 같이 들어가자고 해도 쉬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상당 기간을 딱만 지원하는 정도에 머물렀지만, 그 마음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사업 부도로 공장이 넘어갔을 때도 다른 공장을 빌려 기어코 수용자들에게 돌아갈 떡을 펼 정도였으니, 그 각오와 정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간다.

“열심히 활동했던 김 목사가 세상을 떠난 뒤 선교회 2대 회장인 김 병곤 목사가 찾아왔을 때, '이제 나도 교도소에 갈 때가 됐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꺼이 교정사역에 동참하겠다고 했고, 전국 교도소를 다니며 예배, 자매결연,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04년 목사 안수를 받았죠. 떡공장 사장이 교정사역에 힘쓰는 목사로 거듭난 겁니다.”

한여름 태양처럼 뜨거운 교정교화 열정

2007년, 공주교도소의 한 사회복귀과 직원이 그에게 불우 수용자들과의 자매결연 활동을 청했다. 최영호 교정위원은 이를 계기로 공주교도소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교정사역의 적극성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그해 가을 공주교도소 교정위원에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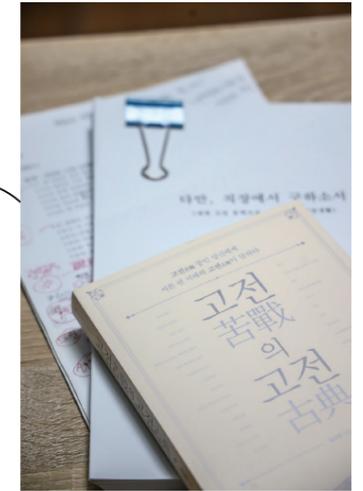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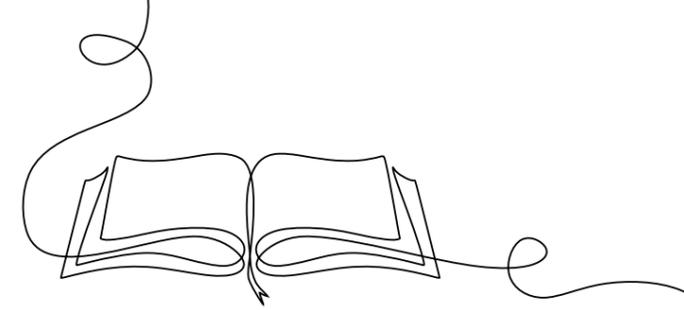


“지금은 충북 음성군에 공장이 있어서 오는 데 2시간 걸리지만, 성남에 공장이 있었을 때만 해도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4~5회 교정사역을 위해 공주교도소를 찾았죠. 공주가 고향인 것도 아니고 이곳에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지금껏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저와 공주교도소는 인연이긴 한가 봅니다. (웃음)”

종교는 때때로 신념이나 가치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최영호 교정위원은 그 힘이 수용자들을 올바른 사회 복귀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 굳게 믿는다. 그는 실제로 교정사역을 통해 많은 수용자들을 밝은 세상으로 이끌었다. 어릴 적 큰 범죄를 저질러 20년 가까이 복역한 한 수용자는 죄를 뉘우치고 출소한 뒤 열심히 일하며 종종 그에게 안부 전화를 건다. 눈앞의 유혹으로 굳게 마음먹었던 신념이 흔들릴 때, 종교적 가르침을 통해 나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른바 '영성훈련'도 여러 차례 진행해 수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정위원으로서의 활발한 활동, 그 뒤에는 아내와 공주교도소 교정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도 제가 지원 물품을 감박할 때마다 꼼꼼하게 수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챙겨줍니다. 교정공무원들은 그간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교정사역 활동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밑바탕을 만들어 주시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이분들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영호 교정위원은 작년 개최된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그간의 교정교화 공로와 헌신적 노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 또한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덕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네요!”라며 앞으로도 교정위원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최영호 교정위원. 그의 나이는 올해로 74세지만, 수용자 교정교화를 향한 열정만큼은 영원한 청춘이다.



랜선 도서관 '사월이네 북리뷰', 책 읽어주는 유튜버 ▶ 라이프

인천구치소 교위 김규범

12.35 / 35.00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인천구치소 김규범 교위가 그렇다.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을 맞춤옷처럼 입고 있다.
작가와 유튜버, 강사에 이르기까지 삶의 반경을 넓혀온
김규범 교위는 그저 좋아하는 일을 온전히,
마음껏 사랑했더니 지금에 이르렀다.
그가 전하는 도전 이야기에 귀 기울여본다.

글 김주희 사진 이정도

책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다

책을 주제로 유튜브 콘텐츠를 선보이는 '북튜버(Book + YouTuber)'는 영상을 통해 새로운 독서 문화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튜버는 책의 핵심 내용을 읽어주거나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며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고 독서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이끈다. 김규범 교위는 '사월이네 북리뷰' 채널을 운영하며 구독자 2.5만 명을 보유한 북튜버다. 활동한 지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든 베테랑 유튜버다.

"채널의 슬로건이 '책을 읽고 소개하고 감상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책 또한 대중문화의 한 파트이고, 새롭게 출간되는 책의 양은 셀 수 없을 정도죠. 종류와 양이 방대한 만큼 똑같은 작품을 읽은 사람을 찾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그 영화 봤어?'라며 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것처럼,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마음에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시청자의 도서관'인 셈이죠."

사월이네 북리뷰의 콘텐츠는 '편안하고 친근한' 것이 장점이다. 부담스럽지 않게 책과 친해지도록 돕는다. 자신의 독서 경험을 고스란히 녹인 독서 포인트나 더욱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팁 등을



전달한다. 콘텐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고전 문학을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신간 도서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 요소를 더한 콘텐츠도 눈에 띈다. 이를테면 음식의 어원을 담은 책을 주제로 한 경우 '쿡방'을 보여주는가 하면, 문학 전집 '언박싱', 저자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인터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김규범 교위만의 신뢰감을 주는 화법, 또렷한 발음과 발성 등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읽는’ 사람을 넘어 ‘쓰는’ 사람으로

김규범 교위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기획’이다. 기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방향성을 잃고 시청자들에게도 와닿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10분 내외의 영상을 선보이기까지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듯 기승전결을 갖춘 이야기를 구성하고, 책마다 지닌 고유의 분위기와 특징을 살리기 위해 섬네일을 따로 제작하는 등 영상 하나하나에 세심한 정성을 쏟는다. 많은 영상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콘텐츠는 고(故) 이희수 작가를 만나 진행한 인터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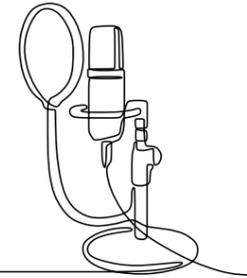
“유튜브를 시작한 지 6~7개월 지났을 때였어요.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채널임에도 작가님이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작가님 작품을 소개한 영상을 보시곤, 어떻게 그렇게 작가 의도를 잘 파악했

는지 놀랐다고 하셨어요. 직접 찾아뵙고 인터뷰도 할 수 있었죠. 그때 용기와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그때 말씀해 주신 새 작품이 세상에 나오지 못한 게 많이 아쉽지만, 제게 해주셨던 따뜻한 말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김규범 교위는 유튜버 활동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책을 소개하는 북튜버에서 책을 쓰는 작가가 된 것. 5년 동안 고전문학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고전의 고전>을 집필하기에 이르렀다. 유튜버로서는 보편적인 해석을 전달하는 정보 제공자였다면 작가로서는 자신만의 관점과 삶의 경험을 오롯이 녹여냈다. 30편의 고전문학 작품을 기반으로 지식을 전하는 정보서, 직장인의 생각을 담은 에세이, 동기부여 자기계발서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지식서’인 셈이다. 일주일 동안 예약 판매를 진행했는데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홍대 소극장에서 북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사실 객석이 텅 빌까 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무려 200여 명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무대에 올랐는데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채널 구독자나고 질문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하셨던 분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구독자와 랜선으로 이어가던 소통을 대면하며 생생하게 교감한 뜻깊은 자리로 남았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결과를 얻는 행복이 큼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전으로 일군 삶의 생동감

국가직 공무원 최초 유튜버인 김규범 교위는 그 누구보다 유튜버 활동에 ‘진심’이다. 퇴근 후와 주말을 활용해 기획, 촬영, 편집까지 모든 과정을 도맡아서 한다. 주 1~2회 업로드하는 일이 피곤할 법 하건만 스스로 좋아서 하기에 힘들지 않다고 말한다. 되레 채널을 운영하면서 맞이한 긍정적인 변화는 또 다른 삶의 원동력이자 에너지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자랑스러워요. 광화문 서점에 가족과 함께 갔는데, 딸이 ‘작가 아빠’라며 자부심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책을 잘 소개하기 위해 좋은 책을 선별해 열심히 읽는 만큼 지식이 계속 확장되는 것 같아요. 의학, 역사 등 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책을 읽고 정보를 한 번 더 정제하기 위해 곱씹기 때문이죠. 전문 지식의 경우 업무 지식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김규범 교위는 유튜버에 도전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동료들을 위한 도움말도 덧붙였다. 공무원 신분으로 N잡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 겸직 허가를 받기 전에 주제를 충분히 고려하길 권했다. 취미 및 여가생활 등 건강한 주제의 콘텐츠라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책 속에 저를 ‘하이브리드 휴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워낙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바쁘게 살면 피곤하지 않냐고 물어 보는데, 정말이지 사는 게 재밌습니다. 살아 있다는 생동감을 느낀 달까요. 무언가를 하고 결과를 얻는 행복이 큼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새 작품도 집필 중이고,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대중과 가까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대중과 오래오래, 가까이 만나고 싶다는 꿈을 꾸는 김규범 교위. 또렷한 목표와 농도 짙은 열정,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만들어 낼 그의 행보가 자못 기대된다.

김규범 교위가 추천하는 고전 Best 3



1
『고전의 고전』
저자 김규범
고전 문학작품 30편을
직장에서의 에피소드와
연결 지은 책.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일상을
향한 동기부여는 덤.



2
『외투』
저자 니콜라이 고골
직장 생활에서 겪는
세대 갈등, 권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은근한 팩폭으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의 길잡이를 제공한다.



3
『레 미제라블』
저자 빅토르 위고
직업, 성격, 외모 등
다양한 등장인물이 등장한다.
교도관으로서 수용자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취미의 공유> 코너 참여신청하기!

<취미의 공유>는 교정공무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정 공무원 동호회를 소개하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 공유하고 싶은 본인의 취미 활동을 홍보해 일상에 새로운 활기를 되찾아 보세요!

참여신청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
(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지은솔

프로볼링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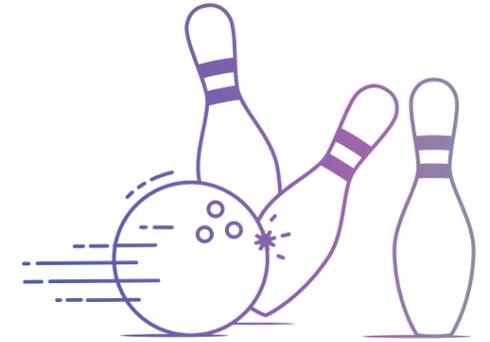
정미나

서울동부구치소 교사



우아하게 Swing, 짜릿하게 Strike! 볼링 기술을 정교하게 다듬다

서울동부구치소 교사 정미나 & 프로볼링 선수 지은솔



실전을 통한 1:1 맞춤 코칭

대표적인 생활체육 중 하나인 볼링은 볼을 굴러 목표 지점에 놓인 10개의 핀을 넘어뜨리는 스포츠다. 한 게임은 보통 10 프레임까지 진행되며, 한 프레임 당 공을 두 번까지 굴릴 수 있다. 첫 번째 기회에 10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 두 번째에 모든 핀을 처리하면 스페어라고 한다. 볼링에서는 무거운 볼의 스핀과 파워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기술과 정확한 위치와 방향으로 볼을 굴러 넣을 수 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3년 동안 볼링을 즐겨 온 정미나 교사는 평소 만나고 싶었던 지은솔 프로를 만나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볼링 경기를 보면서 지은솔 프로님의 플레이를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꼭 만나서 배우고 싶었거든요. 제가 갖춘 기본기는 어느 정도인지, 기술과 자세의 안 좋은 습관은 없는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겠지만, 볼링 또한 한 가지 동작만 잘한다고 좋은 점수를 기록하거나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 가장 기초가 되는 자세부터 디테일한 기술들을 제대로 몸에 익혀야 한다. 인천 연수구에 자리한 볼링장에서 만난 두 사람은 게임을 즐기며 원 포인트 레슨을 주고받았다. 정미나 교사는 평소 손에 볼을 놓는 릴리즈 동작에서 엄지가 빠지는 순간인 ‘엄지 타이밍’이 다소 빨라 고민이었던 터. 지은솔 프로로부터 이에 대한 코칭을 받았다. 또한 스페어 처리 고득점 노하우도 배울 수 있었다. 지은솔 프로는 자세와 기술 못지않게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중 실수한 부분에 연연하지 않고 해결 방안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경기 중 늘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긴장될 때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연습해왔던 루틴을 되살립니다. 심리적으로는 즐기는 자세 또한 마인드 컨트롤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위한 방법은 ‘배움’이라고 했던가.

서울동부구치소 정미나 교사가 볼링 기술 한 수를 배우러 나섰다. 볼링선수 지은솔 프로를 만나 기술과 자세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은 것. 우아한 스윙과 짜릿한 스트라이크를 함께 즐기며 배움의 기쁨을 누린 하루를 담았다.

글 김주희 사진 홍승진



이것이 궁금하다!

Q&A

Q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A 스트라이크도 중요하지만 스페어 처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합할 때 결과적으로 보면 스페어 미스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1,3 포켓에 안정적인 라인을 찾고 스페어 처리를 하다 보면 좋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Q 볼 스피드를 높이고, 회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A 스피드를 높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의 경우 몸의 리듬을 전체적으로 빠르게 합니다. 릴리즈 하는 순간에 중·약지 방향을 6시에서 9시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끝까지 해주면 회전을 만들 수 있어요. 중·약지의 타이밍보다 엄지 타이밍을 살짝 빠르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될 거예요.

Q 레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볼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때 유용한 요령을 알려주세요.

A 레인을 파악할 때는 외피가 폴리싱된 공으로 1번부터 3번 스왓에 굴러보세요. 오일이 발린 자리와 발리지 않은 자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롱 패턴일 경우,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움직임이 가장 좋은 자리에서 오일을 이길 수 있는 외피가 샌딩된 공을 우선 선택해 보세요. 공의 반응이 빠를 경우 다시 폴리싱된 공을 선택합니다. 숏 패턴일 경우, 공이 밀려갈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고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움직임이 순한 공을 선택하세요. 이때 공의 반응이 약하면 좀 더 움직임이 날카로운 공을 선택합니다.

Q 엄지 타이밍이 빠른 편이라서 고민입니다.

A 엄지 타이밍은 지공 과정, 공을 쥐는 악력이나 손의 모양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몸의 리듬이 맞지 않아 엄지 타이밍이 빨라질 수도 있는데요. 엄지 홀을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사용하는 동시에 엄지에 힘을 적절히 빼면 일정한 타이밍을 지속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Q 볼을 잡아당기는 듯한 스윙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원하는 타겟의 안쪽으로 미스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볼을 잡아당기는 자세는 안쪽 미스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스윙하는 순간 볼이 정점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볼을 잡아당기면서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스윙이 되지요. 진자운동의 원리를 이용해 포워드 스윙에서 힘을 쓰지 않고 볼의 무게에 의해 팔을 내려야만 끌어당기지 않는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MINI INTERVIEW

서울동부구청소
교사 정미나

“프로 선수에게 코칭을 받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지은솔 프로님의 볼 스피드와 회전력 등의 기술은 일반 선수들과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앞으로의 선수 생활에 좋은 일들만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MINI INTERVIEW

프로볼링
선수 지은솔

“함께 볼링을 해보니 정미나 교사님 운동 신경이 남다른 걸 느꼈어요. 특히 볼 스피드를 올리는 게 쉽지 않은데, 수월하게 하시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자세 또한 손볼 데 없이 깔끔하고요. 기본기가 좋아요. 좋은 기회로 함께 즐길 수 있어서 색다른 경험이 됐습니다! 나날이 교사님 실력이 일취월장하길 바랍니다.”

<전문가에게 묻다> 코너 참여 신청하기!

<전문가에게 묻다>는 교정공무원의 참여로 만들어지며, 평소 고민이나 궁금했던 사항을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코너입니다. 은퇴 설계, 재테크, 자녀 교육, 취미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참여 신청 방법 correct2015@naver.com
으로 신청(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패턴 셔츠 & 화이트 팬츠

여름을 상징하는 타이다이 패턴의 오버핏 셔츠와 화이트 팬츠로 맞추고, 레더 스트랩 샌들과 선글라스 더해 깔끔하고 시원해 보이는 휴가철 트래블룩.



패션은 산뜻하게 도전은 과감하게

여름이 깊어갈수록 날씨도 후끈해진다. 산뜻한 옷차림은 무더위로 지친 몸에 활력을 더해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평소 시도해 보지 못했던 색다른 스타일에 도전해 보고자 순천에서 서울로 향한

최상철 교위. 이날 하루는 그가 바로 이 구역의 패션왕이다.

글 정라희 사진 홍승진 스타일링 박송이 헤어&메이크업 김연주



올여름 특별한 추억이 될 색다른 시도

평소에는 무난하고 편안한 스타일을 주로 입었다. 출근하면 근무복을 입고 생활할 때가 잦았던 터라 분주한 일상 속에 패션까지 신경 쓸 겨를은 거의 없었다. 그래도 한때는 빨간색 바지를 입고 다니기도 했을 만큼 '무조건 무채색'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다. 이처럼 최상철 교위는 기회만 있다면 얼마든지 과감한 스타일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열린 태도를 지닌 사람이다. 그래서일까. 동료의 추천으로 '나도 패션왕'의 주인공이 됐을 때도 쑥스럽기보다 설레는 마음이 더욱 컸다.

"아내에게 '나도 패션왕' 이야기를 살짝 했더니 먼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울로 왔습니다."

최상철 교위에게 서울은 아내와 연애했던 시절 자주 데이트를 즐겼던 곳이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내를 만나기 위해 장거리 이동도 마다하지 않고 쉬는 날이면 서울로 발걸음을 옮기고는 했다.

"아내는 대학교 같은 과 후배예요. 막상 학교 다닐 때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면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인연이 됐습니다. 한창 연애했 때는 제가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제가 머물던 안동에서 서울까지는 차로 두 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장거리 연애를 하다 2011년에 결혼했습니다."

이후 순천교도소로 발령받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순천에 터를 잡았다는 최상철 교위. 전주 교도소에서 근무할 때는 홀로 관사에서 3년 동안 생활하기도 했다. 그러다 올해 1월에 순천 교도소로 돌아오면서 다시 가족들과 오순도순 순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순천은 자동차로 30분이면 도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인구가 28만 명 내외의 작은 도시여서 대도시처럼 복잡하지 않고 사람들도 여유가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가족들도 순천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

패션 분야에 종사하는 지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옷을 입었을 때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지면 어색한 거고, 어색하지 않다면 괜찮은 거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옷을 입을 때 담당해지려고 합니다.

”

Change your Style

- 외모를 가꾸는 데 관심이 없어 축복받은 유전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교정인.
- 삶의 터닝포인트를 위해,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기분 전환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교정인.
- 멋지게 변신시켜 드리고, 월간 <교정>에 소개해 드립니다.
- correct2015@naver.com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리넨 재킷 & 치노 팬츠

덴디한 느낌을 주는 리넨 소재의 카키 컬러 재킷과 아이보리 티셔츠, 베이지 치노 팬츠, 베이지 편칭 로퍼로 구성된 톤온톤 무드의 여름 오피스룩.

새로운 변화가 이어지는 2022년

올해로 13년 차 교정공무원인 그에게 2022년 하반기는 변화의 시기다. 오래 몸담았던 보안과를 떠나 직업훈련과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보안과와 직업훈련과 근무의 가장 큰 차이라면 ‘주벽’이에요. 보안과는 주벽 안에 있는데, 직업훈련과는 주벽 밖에서 근무하거든요. 외부 업체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용자들이 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조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과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일은 직업훈련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용자들을 선발하는 일이다. 7월부터 시작한 일이지만 그는 빠르게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해가고 있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다른 업무를 익히며 새삼 ‘도전’의 의미도 되새긴다. 일반 기업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교정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열정 가득했던 시절의 임용 초기의 추억도 떠올려본다.

“처음에는 교정공무원의 장점이 직업의 안정성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정공무원이 되고 나서 느낀 최대 장점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겁니다. 다재다능한 동료들을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전처럼 다양한 취미를 즐기며 일상을 회복하고 싶은 바람도 생겼다. 사실 최상철 교위는 쉬는 날이면 실내에서 머무르기를 선호했던 타고난 ‘집돌이’였다. 하지만 한창 에너지 넘치는 초등학생 자녀와 캠핑을 시작하면서 아웃도어 활동에도 눈을 떴다. 기회가 된다면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싶은 바람도 생겼다.

“한때는 이런저런 취미생활을 즐긴 적도 있습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기타를 배워서 서너 번 공연도 했었어요. 탁구와 축구도 해봤고, 전주에서 근무할 때는 권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십견이 와서 한동안 운동을 쉬었더니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막상 시작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어쩌면 이번 촬영이 새로운 시도를 해볼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클릭
하다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도전의 여정

모던한 분위기의 스튜디오에 앉아 헤어스타일을 정리하고 메이크업을 받으니 어쩐지 어색한 기분도 든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원하던 스타일에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솟는다. 이날 최상철 교위가 선택한 첫 번째 변신 콘셉트는 ‘공향록’이다. 새하얀 바지에 세련된 무늬가 있는 반소매 셔츠를 매치하니 상쾌한 느낌이 살아난다.

“패션 분야에 종사하는 지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옷을 입었을 때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지면 어색한 거고, 어색하지 않다면 괜찮은 거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옷을 입을 때 당당해지려고 합니다.”

최상철 교위의 두 번째 변신 콘셉트는 ‘캐주얼 오피스룩’이다. 법학을 전공한 덕분에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승무를 담당하면서 재판관석을 위해 종종 정장을 입을 때도 있었지만, 편안하면서도 스타일까지 챙길 수 있는 캐주얼 오피스룩은 정작 시도해 본 적이 없었다. 은은한 베이지색 면바지에 가벼운 티셔츠, 산뜻한 소재의 재킷을 걸쳐 완성한 캐주얼 오피스룩. 유달리 잘 어울리는 스타일에 본인도 만족스러운 표정이다.

“제가 모델이 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화보 촬영할 일이 살아가며 몇 번이나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결혼식 이후로는 거의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실제로 촬영해 보니 기대 이상으로 실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과 안목으로 이제껏 몰랐던 자신의 색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어 더욱더 좋았다고 말하는 최상철 교위. 앞으로는 험령한 박스형 셔츠 대신 스타일을 살려주는 옷차림도 시도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든다. 어쩌면 일상을 바꾸는 도전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익숙함을 내려놓는 작은 용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순천에서 방문하면 좋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순천만전망대를 추천합니다. 전망대가 다소 멀게 느껴지더라도 전망대 위까지 올라가 보세요. 갈대밭을 걸다가 전망대 꼭대기에 올라가면 또 다른 순천의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순천에 살면서도 꼭 다시 들르고 싶은 곳입니다.”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용서를 구합니다

글 이○○



● 저는 훌륭한 성품을 지닌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인간관계도 원만했으며 별 탈 없이 지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죄를 짓게 돼 무려 4년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순전히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청년이 된 후 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나쁜 마음을 먹게 됐고 결국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 저로 인해 상처 입으신 피해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저 자신이 정말 후회스럽고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를 짓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제가 참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 작은 방 안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 그중 교도소를 생각하면서 떠올러지는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도소를 무조건 수용자가 벌을 받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용자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닌 수용자를 교화시켜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교도소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난 이후부터 제 수감생활은 180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히 수감생활을 마친 후 교화된 저 자신의 모습이 기대됐고 앞으로의 미래가 궁금해졌습니다. 이처럼 궁극적인 마음과 목표가 생기니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찬 기본이었습니다.

●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죄를 짓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주어진 벌을 달게 받고 출소 후 새롭게 출발할 것입니다. 또한 수감생활 중 틈나는 시간마다 독서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제 출소만을 기다리고 있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말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잃지 않고 지덕체를 갖춰 가족들에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쉽게 벌어 쉽게 쓰는 이전의 호화로운 생활은 꿈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이제는 그 꿈에서 깨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행복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말로는 쉽고 단순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루기 힘든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살아가는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 아침 기상하는 순간에서부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저 자신은 이런 질 나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늪에 빠져 저 자신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이런 저 자신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바입니다.

● 돈이라는 존재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힘든 것이 바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있으면 사람의 심리상 더 많은 돈을 원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 잘못된 반복을 행할 때면 마치 먹어도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먹보가 된 기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충동을 절제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 연은 역풍에서 더 높이 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마주한 이 역풍에서 힘차게 날아오를 때입니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가 생겼기에 앞으로 펼쳐질 나날들이 자신 있고 기대되는 지금입니다. 남은 수감생활 동안 더 반성하고 반성하며 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나 평온하고 지루했던 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새침테기 딸이 갑자기 자전거가 타고 싶다 합니다. 아내는 “여자아이라 넘어져 흉터라도 생기면 안 된다고, 요즘같이 차도 많고 위험천만한 세상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도 부모님이 그런 이유로 못 타게 했고, 지금까지 타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했다며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하는 수 없이 딸에게 조심스레 물어보니, 저를 화장실로 부릅니다. 무슨 큰 비밀인 듯 “아빠, 나는 자신감이 너무 부족해서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세상에서 자전거가 제일 어려워 보이더라. 이것만 성공하면, 나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 그리고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줘” 그리고 “꼭이야”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내뱉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는 ‘자식의 날개’를 받쳐주는 바람과 같은 아빠’라 했습니다.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자신감을 찾고 싶다는데, 발 벗고 도와주지 않을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꺼이 그 바람이 되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평온하고 지루한 삶을 스틸러의 삶으로 바꿔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부부싸움 같습니다. 게다가 부부싸움같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똘똘 똘똘해도 맘고생이 최고란 말입니다. 치열했던 1주일간의 부부싸움은 저의 살을 3kg 빼어주고, 딸의 자전거를 취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자전거 연습, 저는 딸아이에게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으니, 되든 안 되든 10일만 연습해보자 했습니다. 사실 운동신경이 없고 겁도 많은 딸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첫날부터 엉망진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전거 페달에 두발을 올리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으니 말 다했습니다. 게다가 뒤에서 자전거를 꼭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신 “아빠? 꼭 잡고 있지? 잡고 있지? 놓으면 안 돼? 절대 놓지 마”를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어쩌다 이런 아빠가 됐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딸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아빠였었나?’ 하는 자괴감까지 밀려옵니다. 문득 지금이 그 믿음을 쌓을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뢰도 쌓고, 자신감까지 선물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내와 딸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딸은 약간 까진 무릎을 움켜쥐고서는 아프다고 흘리고, 아내는 빨간약을 발라주며 흘리고는 검은 눈동자 10%, 흰 눈동자 90%의 눈을 하고서는 저를 뚫어저러 쏘아봅니다. 신뢰와 자신감은 그리 쉽게 얻지 못하나 봅니다. 예상대로 저의 저녁은 반전 없는 악몽 같은 스틸러의 하루로 마감하게 됩니다.

며칠 후, 다시 시작된 자전거 연습. 이제부터는 제법 페달은 굴립니다만,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균형을 못 잡겠다. 앞에 큰 돌이 있다. 길이 너무 넓다. 갑자기 경적

이 들려 놀랐다. 반대쪽에서 개가 온다. 심지어는 뒤에서 개가 온다” 등등... 무엇이든 갖다 대기만 하면 핏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사실은 겁이 많은 것이 저를 쫓 빼뺏았다는 것입니다. 9일째 되는 날, 잘되지 않는다며 울먹이는 딸을 보니 미안함과 안쓰러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한참을 다독여주며 내일 마지막으로 도전해 보자 하고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은 치킨만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10일째,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지금까지 힘든 것을 따지자면 어쩌면 딸보다 제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딸에게 자신감을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에 큰맘 먹고 속임수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딸이 아빠는 어떤 방법으로 자전거를 배웠냐고 묻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전거는 가까운 땅만 보면 절대로 못 탄다. 중요한 것은 조금 멀리 보며 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다.” 사실 군산교도소에서 근무하신 배기환 계장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멘트인데, 처음부터 알려주면 인생의 깊은 맛을 깨우치지 못할 것 같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물어보다니, 안 물어봤으면 무척 서운했을 법했습니다. 아무튼 딸에게겐 별다른 감흥은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번만큼은 각오를 단단히 한 모양입니다.

“세진아, 이번이 마지막이니 힘차게 페달을 밟아볼까?” 아빠와 딸이 동시에 깊게 숨을 들이킵니다. 여전히 딸은 “아빠, 절대 손 놓지 마”하며 힘차게 페달을 밟고 나갑니다. “응. 절대로 걱정하지 마. 아빠 절대로 안 놔”하고 잡고 가던 손을 살짝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잡는 척하며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달려”하고 뛰었습니다. 점점 숨이 차올라 멈췄습니다. 멀리 페달을 굴리며 가는 딸이 작아지며 흐릿하게 번져 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름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딸, 잘한다. 야호~ 해 냈다~”하고 하늘을 향해 어쩔것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새침테기 둘째 딸, 이제는 제 품에 돌도 없는 애교쟁이가 되어 안겨 있습니다. 그날 저녁, 자전거 탄 기념으로 치킨을 먹는데, 아내가 딸의 자전거 탄 동영상을 보더니 자기도 타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헐~! 운전도 다른 사람은 가르쳐도, 가족끼리는 가르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지 않던가? 딸의 자전거 연습으로 제법 살이 빠진 저를 보더니 이번 기회에 아내가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고 싶었을까요? 이리다 부부싸움 제대로 한판 할 것 같다는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자전거 연습이 끝나면 다시 평온하고 지루한 일상으로 복귀하나 했는데, 아내가 그 틈을 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인내하며 사랑으로 가르쳐 보겠습니다. 언젠가 가족 모두가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 하이킹을 떠나는 그날을 꿈꾸며 말입니다.

자전거는 사랑을 싣고

글 홍성교도소 교위 정우성



산책하기 좋은 야경 명소 눈부시거나 황홀하거나

반하지 말라는 데도 자꾸 반한다. '조명달'이라는 데도 자꾸 끌린다.
시냇말로 '딴딴'한 이 여름, 어김없이 찾게 되는 곳이 있다.
반짝반짝 빛나는 야경 명소들이다. 그중 산책하기 좋은 몇 곳을 골랐다.
더위 없이 걷고 싶은 밤, 풍경 황홀한 곳이 그림자만 주저 말고 찾아가 보자.

글. 사진 이시목 여행 작가



달 보러 가지 않을래? 충북 충주 중앙탑공원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란 노래 가사의 한 구절이 마음을 뒤흔든 적이 있다. 듣자마자 머릿속이 별로 가득 차, 급기야는 별을 보러 가고야 말았다. 별처럼 그렇게 '달'에 빠져 지낸 적이 있다. 당시 가장 자주 많이 찾았던 곳이 중앙탑공원이다. 탑평리7층석탑을 중심으로 조성된 중앙탑공원은 365일 휘영청 밝은 달이 뜨는 곳이다. 진짜 달(月)이 아닌, 달 모양의 조형물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이곳에서 달은 매일 밤 세 개씩 뜬다. 하늘과 물 위, 그리고 탑 앞. 이 중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달은 탑 앞에 놓인 달 조형물이다. 밤이면 황금빛으로 빛나는 탑과 하얗게 환한 보름달이, 푸른빛 들판 머금은 하늘 아래에서 찬란하게 빛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요즘 SNS를 뜨겁게 달군 몽환적 실루엣의 인증샷 포인트도 바로 여기서다.

공원은 잘 꾸며진 조각공원이면서 '탄금호 무지개길'을 품은 산책로이기도 하다. 나무숲 사이사이에 멋스러운 조각들과 함께 벤치나 팔각정 같은 쉼 곳이 충분한 조각공원은 밤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은 곳으로 입소문 났고, 탄금호 푸른 물길 위에 '부유식 다리'로 놓인 1.4km 길이의 '탄금호 무지개길'은 길 위로 오색빛깔의 조명이 쏟아져 내리는 밤 산책 코스로 유명하다.

동굴 속 카약 체험 어때요?



폐광된 활석 광산을 관광지로 꾸며 핫플이 된 곳이다. 주요 체험 테마는 빛. 넓고 긴 갭도에 알록달록한 빛과 아기자기한 조형물이 가득해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동굴 속 맑은 호수에서 투명 카약을 타는 것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다. 탑승객이 패들을 직접 젓고 스스로 속도를 조절해 훨씬 재밌다. 여름 한낮 기온이 13~15°C에 불과해 동굴 내부가 서늘하니, 방문 시엔 긴팔 옷도 준비하자.

**밤이 되면 열리는 빛의 정원
경남 통영 디피랑**

요즘 통영에선 '삼피랑' 여행이 필수다. 삼피랑은 통영에 있는 동피랑과 서피랑, 디피랑 등 세 개의 피랑(벼랑)의 순수 우리말을 말한다. 이 중 가장 핫한 스폿은 디피랑이다. 동피랑 벽화들이 밤이면 남망산에 모여 축제를 벌인다는 상상력으로 기획된 디피랑은, 미디어아트라는 디지털 기술에 벅수·자개·통영항 같은 '지극히 통영다운 색채'를 입혀 펼쳐낸 빛의 정원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테마파크인데다 풍경마저 황홀해 인기 고공행진 중이다.

어둠을 활용한 '나이트워크', 즉 밤길을 걷는 콘텐츠란 점에서도 디피랑은 인기다. 기존의 남망산 산책로 1.5km에 구간별로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미디어 장치를 설치해, 15개의 테마 공간을 빚어냈다. '이상한 발자국'부터 '반짝이 숲' '오래된 동백나무' '비밀공방' 등을 거쳐 산 정상에 닿는데, 반딧불이 수천 마리가 모인 듯한 '반짝이 숲'과 빛이 온몸을 뒤덮는 '비밀공방' 등이 사람들의 시선에 오래 머문다. 특히 '비밀공방'은 하늘을 제외한 사방의 벽과 바닥이 커다란 영상관인 곳이라, 온몸으로 분홍빛 꽃잎이 떨어지고 눈앞에서 고래가 수영한다. 그 풍경 더욱 황홀해 발걸음 쉬이 떨어지지 않는다.

빼빼기를 아시나요?



통영은 소문난 별미가 많은 곳이다. 총무김밥, 꿀빵, 빼빼기죽 등. 이 중 가장 최근에 알려져 '핫'한 별미가 빼빼기죽이다. 통영 사투리로 '말린 고구마'를 뜻하는 '빼빼기'를 콩, 조, 찹쌀 등 잡곡과 함께 2시간 이상 푹 끓인 빼빼기죽은 춥고 가난하던 시절 허기를 달래주던 구황음식 중 하나다. 고구마의 단맛과 각종 잡곡의 고소함이 조화로워 맛있게 술술 잘 넘어간다.



**반짝반짝 빛나는 물가 산책로
경북 안동 월영교**

월영교는 여름밤 운치 있게 내뿜는 분수와 함께 야경의 극치를 보여주는 목책교(길이 387m)다. 밤안개와 운무에 쌓인 야경이 특히 백미인 곳으로, 새벽 무렵 물안개가 뿔뿔이 돋은 풍경도 몽환적이다. 피안인 듯 현실인 듯 아름다운 다리를 그림 속 인물처럼 걸어 건너고 싶다면 꼭 찍어 해질 무렵이나 해뜰녘에 방문해 보자. 붉은 노을과 화려한 조명이 어울려 빛깔 더욱 고운 풍경 안에 놓일 수 있다.

월영교는 즐기는 방법도 다채롭다. 높은 곳에서 조금 떨어져 조망하고자 한다면, 다리 입구에 있는 안동물문화관 전망대에 오르자. 물위로 매끈하게 뻗은 월영교와 다리 중간에 있는 월영정이 보다 선명하게 보인다. 유람선(월영누리호)이나 문보트를 타고 유유자적 강바람을 맞으며 호수를 유람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달그락(7~9월, 매주 토요일 18:00~22:00)'이나 '청사초롱 달빛걷기(7~10월, 매주 토요일 19:00~22:00)' 같은 야간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사전 예약 필수)하는 것도 좋다.

벚꽃이 뒤엔 야간 산책도 즐겨보자. 월영교는 안동댐 보조호수를 기준으로 물길로 나뉜 두 동네(상아동, 성곡동)를 잇는 다리다. 다리 입·출구 어느 쪽에서건 경관 조명 설치된 산책로가 이어지니 발길 닿는 대로 걸어보자.

월영교 반영 보며 걸어요



'호반나들이길'은 이름 그대로 '안동호'의 가장자리를 따라 걷는 길이다. 안동댐 보조호숫가의 울창한 숲길을 따라 월영교에서 법흥교까지 2.1km가량을 걷는 코스다. 타박타박 걷기 좋은 흙길이거나 걷기 편한 데크이 쪽이 이어져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다. 무엇보다 월영교와 임청각의 반영을 보며 걸을 수 있어 좋다. 편도 30여 분 거리로, 산책로 곳곳에 조명이 있어 밤 산책도 가능하다.



장애, 이상하지도 그렇다고 특별하지도 않은

장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담아낸 드라마들

최근 방영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 이야기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또 종영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는 실제 다운증후군 화가이자 배우인 정은혜가 출연했다.

이 작품들은 장애에 대한 어떤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을까.

글 정덕현 문화평론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쏘아 올린 장애에 대한 화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졌지만, 천재적인 기억력으로 변호사가 되어 활약하는 우영우(박은빈)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다. ENA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케이블 채널에서 0% 시청률로 시작해 6회 만에 9.5%(닐슨 코리아)를 기록하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 신드롬의 중심에는 장애를 바라보는 이 드라마의 색다르고 따뜻한 시선이 존재한다.

장애를 갖고 있어 의뢰인조차 잘 믿지 못하고 나아가 법정에서 검사나 판사조차 편견 어린 시선을 던지는 현실 속에서도, 우영우는 독특한 발상의 전환으로 변론을 이끌어간다. 그런데 이 발상의 전환이란, 다른 변호사들이 어떤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데서 생겨난 우영우만의 특별한 시각이다. 아마도 장애를 갖고 있어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경험했을 우영우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걸 뛰어넘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바라본다는 것. 장애가 불편한 어떤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가능성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걸 드라마는 예들려 보여준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신드롬급 인기를 끄는 진짜 이유는 우영우라는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들이 보여주는 편견 없는 시선들이다. 어린 우영우를 버리고 떠난 엄마와 달리 헌신적으로 그를 챙겨준 아빠와, 편견 없이 그의 능력을 보고 변호사로 채용한 로펌 대표, 장애 자체의 벽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절친, 처음에는 '보통 변호사'와 비교하며 우영우에 대한 편견을 가졌지만 차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변화해가는 상사, 함께 지내는 것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배려해 주는 '봄날의 햇살' 같은 동료... 사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감동을 만드는 건 우영우의 주변 인물들이 보여주는 훈훈한 모습들이다.

물론 우영우가 자폐 스펙트럼이긴 하지만 자폐 중 극소수에 불과한 서번트 증후군 같은 천재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즉 혹여나 이것이 자폐의 전부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드라마는 우영우의 목소리를 빌어 "자폐인은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놓았고, 오히려 이런 논의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다는 건 건강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다.



© ENA



© ENA

결국 이 드라마는 장애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그건 어딘가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 이상하게 여겨졌던 우영우가 그다지 다르지 않은 존재이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때론 화를 내고 때론 고마워하기도 하는 똑같은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하지도 않은 그런 존재인 것이다.

없는 것처럼 치부되던 장애, 이제 세상 속으로

사실 우리에게 장애란 마치 없는 것처럼 치부되던 어떤 것이었다. 사실상 태어나 홀로 서지 못하고 한동안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나이 들어서도 한동안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씩 장애를 겪기 마련이지만, 우리는 마치 그것을 남 일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돌봄 노동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치부되거나 그런 곳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종영한 노회경 작가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제주에서 해녀로 살아가는 영옥(한지민)과 다운증후군 쌍둥이 언니 영희(정은혜)의 이야기는 바로 이 쉽지 않은 장애에 대한 돌봄 노동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어려서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덜컥 장애를 가진 언니를 돌보고 부양해야 하는 현실을 맞닥뜨린 영옥은, 너무 힘들어 언니를 지하철에 홀로 놔두고 내린 적도 있다. 하지만 모질지 못했던 영옥은 언니를 시설에 맡겨두고는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언니로부터 더 멀리 도망친다. 제주도까지 와서 바다 깊숙이 들어가는 물질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거였다. 그런데 장애를 갖고 있지만 영희는 언니로서 영옥의 그런 마음까지 읽고 있었다. "바다엔 내가 없어서 좋아?" 그렇게 말하면서 동생을 위해 서둘러 시설로 돌아가려고 한다.

"나도 이해해. 사람들이 영희 같은 애를 잘 못 봤으니까. 이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가겠지. 근데 왜 사람들이 영희 같은 애 길거리에서 흔하게 못 보는 줄 알아? 나처럼 다른 장애인 가족들도 영희 같은 애 대부분 시설로 보냈으니까." 영옥이 하는 이 말에는 우리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가 담겨 있다. 없는 것처럼 치부함으로써 이해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이 그것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우리들의 블루스>란 드라마는 영희라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인물의 역할을 실제 장애를 가진 정은혜 배우에게 부여함으로써 세상 밖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길의 실례로 보여준다. 드라마가 방영된 후 배우이자 화가로서 활동하는 정은혜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고,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깨는 일 그 자체였다.

지난 3월 개최됐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이 시상해 더욱 화제가 됐던 남우조연상을 받은 트로이 코치는 청각장애를 가진 배우였다. 즉 이제 장애를 연기하는 것을 장애인들이 직접 하는 시대이고, 정은혜의 사례는 우리 역시 그 흐름에 발맞춰 가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는 것이다. 장애는 이상하지도 또 특별할 것도 없는 어떤 것이다. 넓은 의미로 보면 누구나 한 번씩 겪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마련이다. 없는 것처럼 치부되던 장애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반가운 이유다.



© tvN



© tvN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식문화

물회



차가운 음식을 즐기기로 소문난 한국에서는 물회라는 독특한 식문화를 만들어냈다.

가슴이 후련하고 청수리까지 저릿저릿해지는 물회 한 사발,

게다가 단백질과 매콤 새콤한 양념까지 곁들였으니 제아무리 끈적한 무더위도 단번에 물리칠 듯하다.

글. 이우석 농고면기연구소장



나라별 생선회의 역사

회(膾)는 날고기를 저민 것을 뜻하는 말인데 따로 고기(肉)를 붙이지 않으면 생선회를 말한다. 날생선을 그저 잘라서 먹는 생선회 식문화는 세계적으로 몇몇 국가에만 국한돼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몇 개국, 그리고 이탈리아(크루도, 카르파초)와 페루(세비체), 에스키모 등이다.

천 년간 육식이 금지된 일본은 대신 생선회를 가장 많이 먹었던 까닭에, 세계적으로 생선회 문화가 퍼져나갈 때 사시미(刺身, sashimi)란 이름을 달고 나갔다. 하지만회는 일본에서만 먹던 요리가 아니다. 인류가 불을 이용하기 전까지는 모든 육식성 재료는 회로 먹었다. 따로 부르는 이름조차 없었다. 이후 공자(孔子)나 진등(삼국지)이 회를 좋아했다는 등 중국 기록에서 약 3,000년 전부터 회(膾)에 대한 언급이 빈번히 등장하지만, 어느 순간 중국의 회와 관련한 식문화는 사라졌다.

반면 한국은 일찌감치 고려 때도 회를 생강에 곁들여 먹었다는 등 자세한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온다. 《자산어보(茲山魚譜)》에도 여러 가지 생선회 이야기가 언급되는 등 약 1,000년 전부터 우리 생선회 식문화가 꾸준히 유지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일본은 에도 막부 시절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으니 약 600년 정도의 역사가 된다. 다만 일본이 1964년 도쿄 올림픽 시기에 일본 정부가 음식문화를 외국에 소개하면서회는 일본의 대표 음식이란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지금도 해외 한식당에서 회를 팔 때 '사시미(sashimi)'라고 메뉴판에 적는다. 사시미가 회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고유한 한국의 회 문화, 물회

물회는 생선회를 물에 말아 먹는 방식으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독특한 음식이다. 일본에도 물회와 같은 음식은 없다. 서늘한 육수를 자작하게 놓고 전복 회를 넣은 미즈카이(水貝) 정도가 있을 뿐이다.

물회는 어부들이 바다 한가운데 어선에서 끼니를 때우던 음식이다. 불을 피우기 어려운 뱃전에서 날생선을 잘라 물을 부어 국 대신 먹었다고 한다. 육지에서 가져온 식은 밥이나 국수를 말아 술술 들이켜 배를 채웠던 것이 별미로 진화했다.

요즘같이 더운 날 불판 앞에 앉기 싫다면 시원한 물회가 딱이다. 잘게 썬 꼬들한 생선회가 시원하고 매콤달콤한 육수 안에 웅크리고 있다. 밥이나 국수를 말아 마시듯 훌훌 비우면 식사로도 안주거리로도 제격이다.

지역별 다양한 특색을 지닌 물회

국내에서는 주로 동해안 지역에서 물회가 발달했다. 강원도(강릉) 방식과 경상북도(포항) 방식으로 크게 나누는데 남해안인 경남 통영과 전남 장흥, 제주 등에도 각각 고유한 물회 문화가 존재한다.

우선 강릉을 중심으로 영동권에서 먹는 물회는 광어, 도다리, 오징어 등 흰살생선과 채소를 잘게 썰어 그릇에 넣은 후 차가운 육수에 말아 먹는다. 육수는 명태나 생선 우린 것을 주로 쓰고 여기다 동치미나 김칫국물을 넣기도 한다. 동해안에는 오징어 물회와 골뱅이 물회도 있다. 즐거운 살점이 차가운 육수와 만나면 더욱 존독해지며 진한 풍미와 차진 식감을 낸다.

'포항식'은 육수가 아닌 맹물에 말아 먹는다. 처음엔 가지미나 등푸른생선회와 밥, 채소에 양념장을 비벼 '회밥'이나 '무침회'로 먹다가 얼음물을 부어 물회로 먹는 방식이다. 자칫 비릴 수 있는 등푸른생선을 많이 쓰는 것도 포항식, 그중에 '북부시장식' 물회의 특징이다. 청어와 꽁치, 전어, 멸치, 숭어 등 등푸른생선을 주로 쓴다. 막회에 물을 붓는다 생각하면 된다.

제주에선 자리돔이나 한치를 물회로 즐기는데, 아세트산(빙초산)을 넣어 먹는 시큼하게 먹는 것이 특징이다. 테이블마다 빙초산 병이 올라가 있다. 된장 베이스인 자리물회는 제주 사람들의 여름철 별미다. 여름엔 성게를 넣기도 한다. 전남 장흥에선 구수한 된장 베이스의 된장물회를 먹는다. 초고추장처럼 자극적이지 않다. 감칠맛이 훌륭한 생선살에 배어든다. 생선살 대신 한우를 넣은 한우물회 역시 장흥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맛이다.

경남 통영은 앞바다에서 주로 양식하는 멧게(우렁쉥이)나 굴 물회를 즐기는 것이 유별나다. 전남 고흥에도 겨울철 잡은 굴을 살짝 삶았다가 멸진 국물에 넣고 떠먹는 피굴이 유명한데 이것도 거의 물회라 할 수 있다.

어부들의 식사 대용이었지만 요즘은 물회가 굉장히 화려해졌다. 일반적인 생선살 말고도 멧게, 성게, 전복 등이 들어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한방 약초를 달였다는 육수를 슬러시 형태로 만들어 부어주는 집도 있다.

교정공무원의 직업소명의식 생성과 발달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퇴직 여성 교정공무원 사례 연구②

목차

- I. 서론
- II. 선행 연구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논의 및 제언

IV. 연구 결과

1. 천형의 유배지 소록도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봄

교수는 대학 입시에 실패한 후 소록도에 있는 국립 소록도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취업했다. 사회 첫 출발을 간호조무사로 시작했고, 1년 8개월 재직했다. 그러던 중 신문에 공고된 교정공무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했다. 청송 제2보호감호소로 발령을 받아 교정공무원이라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은 교정공무원을 간수라고 불렀고, 공무원 신분 중에서도 가장 기피하는 직종으로 여겼다. 교수 역시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이라도 홀린 듯이 지원을 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진 연후에 날개 짓을 한다.”는 헤겔의 말처럼 역사는 사람을 불문하고 그 과정과 선택은 사후해석이다.

교수는 처음에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경쟁률이 낮고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매력을 느꼈지만, 교정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교정공무원의 길은 자신에게 준비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수는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철저한 절망을 보았다. 한센병 환자들은 과거 나병 또는 문둥이로 불렸고 사회로부터 격리돼 유배지나 다름없었다.

몽둥병 시인 한하운의 「보리피리」에서는 소록도로 가야만 하는 한센병 환자들의 철저한 고독과 슬픔이 그대로 그려져 있다.

보리 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리 날니리.	보리 피리 불며 꽃 청산 어릴 때 그리워 피리 날니리.	보리 피리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피리 날니리.	보리 피리 불며 방랑의 기산하(機山河) 눈물의 언덕을 피리 날니리.
---------------------------------------	---	--	--

과거 한센병 환자들은 하늘의 형벌을 받은 천형의 환자라고 인식됐고 소록도로 유배됐다. 하지만 교수는 그곳에서 희망을 보았다.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은 절망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나름대로 삶을 영유하고 있었다. 자신의 첫 사회생활이 소록도였다는 것은 절망 속으로 들어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라는 신의 계시와도 같다고 기술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했어. 대학교 떨어지고 소록도 국립소록도병원 간호조무사로 채용이 있었어. 거기서 간호조무사를 특별 채용해 가지고 훈련 교육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게 했다고... 1년8개월 근무하다가 내가 이제 다시 학교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다가 신문에 교정직이 나왔어. 그래서 본 건데 합격이 돼가지고 청송제2감호소 발령을...”



송남옥*

- * 교정부부 심리치료과 교감
- * 아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 E-mail: annes78@korea.kr

교수에게 교정공무원으로서 첫 직장은 청송 제2보호감호소였다. 현재는 일반 교도소로 전환됐지만 1980년대 당시에는 감호소였다. 1980년대 신근부는 삼청교육대를 해산하면서 범죄인들의 재사회화와 사회적응이라는 미명으로 사회보호법을 제정했고, 동종 전과 3회 이상, 3년 이내 재범을 한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이 법은 2005년 폐지됐지만 80년대 당시 사회보호법은 사회통제와 공포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기에 지식인들과 인권운동가들의 비난을 받았다. 따라서 청송감호소에 대한 인식이 좋을 수가 없었다. 우리 속담에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는 말처럼 청송감호소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청송가는 길」이라는 1990년 영화에서 생계형범죄로 전과38범인 주인공 중광은 출소한지 며칠 만에 염소 한 마리를 훔친 죄로 보호감호 10년의 처분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님은 교수의 선택을 반대했고 그 당시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암전히 학교를 마치고 시집을 가라는 요구를 했고, 사회적인 분위기 탓에 친구들에게도 교정공무원이라는 것을 함구해야 했다.

“가족들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청송에 보낸다는 게 범죄인들 하는 데를 가냐 가지 말고 이따가 여기 가만히 있다가 시집가라 이런 식이었죠.”
“나중에 ○○에 와가지고 어디 다니냐 어쩌냐 이렇게 할 때 교도소 다닌다 이렇게 했지. 그전에는 막 그런 걸 친구들한테 내가 알리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 좀 우울한 20대였다고 해야 하나. 그때 당시에 내 마음은 그랬어.”

하지만 교수는 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보다 더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믿었고 모든 것이 중국에는 시간이라는 폭력 앞에 소멸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종말론적 인식론은 1960년대 서양 신학계를 풍미했던 희망의 신학과도 유사하다. 교수 역시 기독교인도 아니고 신학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동시에 죄인이며 그 선과 악은 종말에 가서 밝혀진다고 믿고 있었다. 교도소 역시 인간에게는 종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종말은 소멸과 파괴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다. 고대 히랍어 아포칼립스(Apocalypse)는 기독교 신학에서는 묵시, 일반적으로는 파괴적 종말을 의미한다. 하지만 또 다른 히브리어 아포칼립토(Apocalyppto)는 아포칼립스의 또 다른 변형으로서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의미한다. 교정시설은 특히 감호소는 아포칼립토가 될 수도 있고 아포칼립스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교수는 절망의 절망이라는 사람들이 절망의 극한으로 여겼던 소록도에서 희망을 보았듯이 교도소라는 감호소라는 아포칼립토를 보고자 했다.

“우리가 이제 같은 종족같은 한 동물 중에서도 한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마치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이리지만 결국은 그것도 유한한 존재잖아요. 유한한 존재고 큰 거대한 자연의 한 일부로 보면 동물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고 식물의 세계가 있듯이 그냥 어느 시기가 되면 다 사라지고 소멸되는 한 생명체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면 좀 이런 갈등이라든지 문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내려앉게 되더라고. 결국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권력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돈이 어쩌니 애네가 하기는 해도 그것이 유한하잖아요.”

2. 이기적 가족주의를 넘어 가족의 외연 확장

교수는 같은 교정공무원인 남성을 만나 결혼을 했다. 그는 매우 성실하고 여성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 교수가 남편에게 끌린 이유는 다양했지만 가장 큰 이

유는 여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 때문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성장배경과도 관계가 있는데, 보수적인 부모님들은 여성이 교사나 간호사와 같은 직종에서 일하기를 원했었고 남성 위주의 교정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원하지 않았다.

“○○에서 거기는 분류직으로 들어왔고 나는 교정직으로 들어가고. ○○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소개해 준거지.”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참 성실하고 이렇게 여자를 무시하거나 이리저리고 어떤 부분을 말할 때 설명을 잘하더라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잘해서 여자를 존중하고 이렇게 성실하겠다는 거 하나 보고 한 거죠.”

교수는 결혼 후 출산을 했지만 일·가정은 물론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만 해도 보안과는 2부제였으며, 주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무직은 승진을 준비하는 남성들이 대부분 자리하고 있었으며, 여성인 교수에게 꿈같은 이야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 교수는 친정 부모에게 이들과 딸을 맡겼고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외갓집에서 성장했다. 교수는 자녀들과 애착관계를 형성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고, 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딸은 고등학교 진학 후 어머니인 교수에게 불만을 표출했다. 자녀들에게 엄마는 일하는 자랑스러운 엄마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는 바쁜 엄마였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야근을 했잖아요. 야근을 오랫동안 거의 한 40대까지는 야근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젊었을 때는 야근을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애들을 내가 키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한테 애를 맡겼죠. 친정이 **인데, **에서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왔어요. 내가 주회 정도 가서 보고 그런 친밀감 형성이 그냥 주위에 가서 보는 것이 그냥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애들 데려왔는데 애도 적응이 안 되고 나도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우리 애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또 우리 딸은 고등학교 가서 또 좀 사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가서 엄마를 학교에 오라고 그래. 여태까지 학교에 안간 엄마를 진짜 그게 이제 쌓여서 화가 났나? 참다가 터졌나? 그게 철이 든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다 우리 엄마는 바쁜 사람이나가 어린 마음에 그게 배려로.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게 쌓이니까는 엄마 나 학교 행사 때마다 그래 갖고 그때 우리 딸 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그때서야 학교를 쫓아다녔어. 자기가 오라고 하니까.”

교수의 아들과 딸은 어린 시절 엄마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마음에 반항을 했지만 곧 회복해 무난히 성장했다. 딸은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러한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배경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기쁜 일이 생긴다)이라는 고사성어처럼 교수의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생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는 자녀의 무난한 성장이 자신이 베풀었기 때문이라 생각했고 그녀는 구술 내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삶이 힘들었지만 즐거웠다고 표현했다.

교수는 현재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회 문제와 가족 문제의 근원이 고립된 가족과 가족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 가족만을 생각하고 다른 가족을 존중하지 않았기에 때로는 착취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는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했다. 교수는 교정시설의 수용자들 역시 이러한 가족 이기주의의 피해자들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고, 이를 시작으로 그녀에게 있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소명은 가족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보게 됐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통해 현재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수 역시 자신이 가장 많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동료 교정공무원도 아니라 수용자들이라고 말한다. 그

녀는 자신이 교정공무원이라는 직업인이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 관계를 맺고자 했다. 그녀는 수용자들을 고객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웃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녀의 가족사랑은 혈연 가족을 넘어 교정시설의 가족으로 향했고 이런 가족관은 수용자들을 이웃으로 보는 직업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 힘들면서도 즐거웠어요. 저는 좋았어요. 제 삶에서 이렇게 뭔가 타인과의 공감 최고점 물론 이제 신랑하고의 그런 연애할 때 그런 공감, 만족감 이런 것으로서는 그게 또 직무랑 연결돼 있었으니까 더 좋았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자들이 나랑 상담하면 교도관 같지가 않아요. 이런 말을 많이 그 사람들의 워셔비스든 뭐든 간에 그런 말을 많이 했고, 아니 계장님은 인간적으로 대해준다고. 매번 그리고 그 순간은 언제나 그 사람하고 정말 만는 거 첫 만남 정말 이 사람과 사람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3. 젠더 저항이 젠더 민감성과 공감력으로 승화

교정시설의 조직은 지금도 남성 위주의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교정시설의 보호와 법 집행의 강제성을 주장하고 일반인이 아닌 범죄자를 대하는 것이기에 권력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변하고자 한다. 하지만 문제는 수용자가 아닌 교정공무원과 인사 구조 또는 업무 관행에서도 남성 위주의 권력이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는 출산 전까지 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 2022년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2개월의 법정 출산 휴가는 보장됐다. 하지만 대체할 여직원이 없었기에 교수는 출산 후 1개월 만에 복귀하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지키고자 했다. 이러한 교수의 저항은 신분이 보장된 직업 공무원이라는 것과 자신의 실력이 아닌 인맥을 통해 승진을 하겠다는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성 젠더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의 젠더 저항은 젠더 민감성으로 변했고 이는 여성 재소자들에 대한 공감력으로 변했다.

교수의 경험에 의하면 적지 않은 여성 수용자들이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정시설 내 모든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남성 위주로 짜여져 있다. 교정정책과 교정·교화 프로그램에서도 여성은 철저히 소외됐다. 여성 교정공원은 소수이기에 여성 수용자들을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 교수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여성 교정공무원들의 매너리즘과 심리적 위축을 경계했다. 여성 교정공무원들은 이러한 구조에 함몰돼 교정공무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2016년 심리치료과 신설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여성 수용자들의 교·교화를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교정공무원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여자들은 굉장히 정서적인 소통을 원하잖아요. 그냥 어떤 작업을 안 해줘도 종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따뜻한 말, 인생을 이렇게 그런 좋은 말씀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축축하게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남자 수용자들은 주1회 거의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한 달에 한번 있을 때 것도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교수는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돼 자신의 자녀를 사망케 한 한 여성 수용자의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그 여성 수용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흡연을 위해 담뱃불을 붙이다 화재가 발생해 자녀 둘이 방화로 죽게 돼 살인자가 돼 교정시설에 들어왔다. 그 여성 수용자는 교정시설에서도 폭탄으로 불렸고 직원들이 서로

담당하기를 꺼려 다른 시설로 이감되거나 빨리 출소하기를 바랬다. 하지만 교수는 그 수용자의 성장과정에 주목했고, 그녀 또한 지독한 학대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교정공무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사람을 살해한 많은 수용자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한다고 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수용자들도 있다. 이 수용자의 경우는 꿈속에서 자녀들이 불길 속에서 “엄마 살려줘”라고 소리치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게 됐다. 교수는 외부전문상담사와 협업해 그 여성 수용자에게 접근했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죽은 자녀들과 화해를 경험했다는 말을 들었다. 불길 속에서 살려달라던 외침이 상담이 종결되는 시점에서는 “엄마 고마웠어, 잘 있어”라며 웃으며 떠나가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그 사건이 수용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방화인지 중요하지 않다. 교수는 검사도 판사도 아니며 교정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녀가 말하는 교정공무원의 역할은 악함 이면에 있는 선함을 보는 것이고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선한 양심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양심의 불씨를 살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교정공원은 징벌자도 판사도 아닌 변화의 매개체이고 그 빛을 선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음병의 풍자소설 『육조지』에서는 사법 체제와 교정공원은 물론 검사, 판사, 경찰공무원들을 희화화하는 내용이 나온다. 육조지에서 형사는 때려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지고, 간수는 세어 조지고, 죄수는 먹어 조지고, 집구석은 팔아 조진다고 썼다. 여기에서 재소자들은 감옥에서의 고립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먹어 조진다고 표현했으며, 세어 조진다고 표현한 교정공원은 탈옥을 염려한 1차적 기능에만 충실한 행동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에게 교정공원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나중에 그 애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 동안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지 꿈에 나타난 그 아이들이 매번 꿈속에 그렇게 엄마 나 살려줘 엄마 나 살려줘 이렇게 그런 트라우마 이게 이제 어찌 됐거나 담배 불을 의도한 것이든 의도 하지 않은 것이든 간에 불이 나서 애들이 죽는 과정을 자기가 봤잖아요. 목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악몽을 계속 꾸는 거예요. 근데 계속 치료를 하면서 개가 나중에는 이제 그에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하고 누가 저한테 엄마 그 동안 고마웠어 잘 있어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갔더라고 그 다음부터 애들이 꿈에 안 나타난다 했거든요.”

4. 인간에 대한 신뢰로의 승화

교수는 수용자들을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고객으로 보기도 했지만, 이웃으로 보았다. 그녀의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소명의식은 수용자들을 이웃으로 보고 그들을 선한 이웃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녀는 수용자들이 영원히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미래의 어느 날 출소해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올 사람들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딸에게도 전달돼 경찰인 딸이 수사하고 때로는 처벌해야 하는 범죄자들도 모두 지역사회 이웃이라는 생각을 하라고 말한다.

“그냥 교도관은 원칙대로 하고 수용자들 더 이상 어떤 잡음 안 나오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원천 차단하면서 원칙대로 하는 것에 기계적으로 충실한 그것도 맞긴 맞아요. 교도관의 역할 중에서 분명히 그것도 맞긴 맞는데 우리가 그런 선택을 좀 더 이렇게 거시적으로 좀 더 왜냐하면 그 애들이 어차피 나오면 우리 이웃이 되잖아요. 그 생각에 이렇게 계속 연계선상에서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내가 하는 일에 교도관의 어떤 사명감, 책임감 그리고 또 그

러한 체험을 통해서 만족감 이런 것과 연계해서 그러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수는 수용자들을 이웃으로 보았기에 늘 시선의 폭력을 경계했다. 현재 인권 지수가 높아진 한국의 교정시설에서 어느 누구도 수용자들에게 죄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미국의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은 그의 저서 『수용소(Asylum)』에서 소위 자아무력화 과정에 대해서 기술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군대, 병원은 물론 교정시설도 그 문에 들어온 순간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번호로 불린다. 업무 관행상 부여된 수인번호로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전형적인 인권행정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은 교정공무원들의 시선에 매우 예민하다. 교정공무원 중 어느 누구도 죄수라고 부르지 않지만 당사자들은 죄인으로 불린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교정공무원의 시선 폭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정시설은 원래 감시가 존재하는 곳이며, 수용자들은 이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조소 또는 멸시, 증오의 찬 눈초리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죄인 대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 그들의 교화 의지를 꺾게 만들 수밖에 없다. 죄는 교화되지 않는다. 단지 인간만이 교화될 수 있다.

교수는 시선의 폭력이 얼마나 수용자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개선과 변화 의지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의 표현처럼 수용자들을 늘 이웃으로 보고 시민으로 볼 필요가 있다. 수용자들은 현재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이웃이고 미래에는 지역사회 또는 같은 나라의 국민인 것이다.

“그러니까 수용들이 항상 갖는 그 상처 중에 하나가 왜 너희들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나, 죄인 맞긴 맞죠. 너희들의 시선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 우리가 너희를 언제 그런 취급하나 이렇게 하면 너 시선에 그렇게 쓰여 있다. 이런 너는 수용자고 나는 직원이야. 너랑 나랑 어떻게 비교가 되니 약간 이렇게 물론 이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고 다른 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건 맞고 그 공간에 있는 건 맞는데 그 인격을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초적인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도 항상 그렇게 말해요. 무시하지 말라고, 너 사건 다룰 때 그 신고자들이나 피해자들이든 가해자들이든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니가 무시 안해도 니 표정에서 묻어나는 무시감을 그 사람들은 더 먼저 읽는다. 그러면 너는 계속 삶이 더 팍팍해지고 그 신고자들이든 가해자들은 너가 ○○시민으로 살면서 언젠가는 또 보고 부딪칠건데 그때마다 너는 너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계속 키워가는 거다.”

교수는 아이러니한 표현을 한다. 단순 사기나 절도 등은 형량이 약하고 살인이나 중상해 등은 형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경험에 의하면 많은 강력범들이 자신의 삶 속에 내재된 상처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것을 폭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녀의 경험에 따르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한다. 대부분의 살인범들은 소위 격정범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 역시 같은 사람으로서의 분노의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수용자나 밖의 사람들이나 교정공무원이나 모두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수용자들의 내면 깊숙이 박혀 있는 상처를 보았고 그 상처를 공감을 할 수 있기에 가능한 생각이다.

“그런데 이렇게 절도라든지 어떤 사기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교도소를 좀 자주 들락달락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라리 살인이라든지 무기수 이런 애들은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굉장히 자기한테 큰 상처이고 아니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격정, 화를 참지 못해서 우연히 발생한 일이거나 아니면 계획적으로 주도면밀하게 한 무기수는 저는 기억이 크게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별반 우리네 사람들과고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교수는 교정시설 내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담당했다. 그녀가 그 프로그램을 담당할 때만 해도 여성 교정공무원이 남성 수용자들을 관리하거나 남성 교정공무원이 여성 수용자를 관리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완벽한 성별을 분리한 수용과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었기에 그녀가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됐을 때 주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 당시는 교정시설의 여성 직원이 남성 수용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보고되기도 했던 시절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성폭력사범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가 구성한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소명은 범죄의 종류, 양형 또는 성별을 넘어 문제가 있는 모든 수용자들에게 다가서는 것이다.

“그때 시대만 해도 여직원이 남자 수용자를 관리하거나 남자 수용자를 교화하거나 남자 수용자를 가르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남직원이 여자수용자를 가르치는 것도 없었고, 교도소 내에서는 남녀가 직원이든 수용자든 완전 분리했잖아요. 그 전에 서울 위쪽 지방에서 정보 컴퓨터 교육하시는 여성분이 성폭행 당하는 일이 있었고 나는 그 사람이 전혀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켜보는 우리 직원이 저 수용자를 믿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믿고 말고는 없다. 단지 나는 내 집단원이니깐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만남으로 어떤 전환 아니면 어떤 깨달음 어떤 통찰이 올지 모르니까 가는 그냥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대로 믿고 그냥 끌고 간다. 이 마음으로 한다. 이러니까는 우리 직원이 좀 약간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불안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5. 범죄와 사회의 분리 그리고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담당한 교수의 교정철학은 범죄와 사람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다. 흔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키기가 어렵다. 자신도 모르게 죄와 사람을 동일시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끊임없이 범죄와 사람을 분리시켰고 힘들었지만 즐겁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러한 분리와 객관화는 철저한 준비와 공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업무는 퇴근 후에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문 서적은 물론 다양한 책과 논문들을 보면서 수용자들을 범죄와 사람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폭력사범들은 프로그램 참여자로 격상됐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사전면담 한다고 일단 사람을 보잖아요. 소설 속이나 드라마, 다큐에 나오는 그런 것으로 딱 저 멀리 가지고 그냥 한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도 너무 신기했어요. 프로그램을 하면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수용자 아니면 강간범으로 그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단지 나는 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 프로그램을 끌고 가야 되는 거거더라고 생각하니까 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관찰하게 되고 그걸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까요. 힘들면서도 즐거웠어요.”
“거기에 선량한 수용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여자를 그랬으니까. 근데 다 그런 사람들만 모였는데 언제 어떻게 선생님이 위험한 상황에 도착지 몰라서 자기가 긴장하고 있었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그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 그랬어요! 고마워요!”

그녀의 지혜는 수용자들로부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양심의 씨앗을 발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남성 직원들도 경계했던 한 수용자가 자신이 좋아 하는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자신이 담당했던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서서히 서로를 이웃이라 생각하게 됐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이승이 가던 한 수용자가 수갑에 묶인 팔로 환하게 웃으며 교수에게 “선생님”하며 큰소리로 부르며 인사하고 손을 흔들었던 장면은 아직도 교수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성폭력 가해자라는 어두움 뒤에도 해맑은 인간의 모습이 있음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어떠세요? 요즘도 많이 힘드세요? 처음엔 두 사람 얼마나 서운했는지 압니까? 나름 교육을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느닷없이 &&으로 그것도 6개월 370시간의 심화교육을 받으라고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두 분 덕택에 오늘이 기분과 이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내내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덕택에 &&에서 제일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굶은일은 도맡아 하면서 6개월 370시간을 마치고 소장상까지 받으면서 덤으로 좋은 곳으로 이승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미싱기술이 있다고 봉제공장에 출역해서 이 불을 만들게 됐고, 또 2달 넘어야 집중근로에 넣어준다는데 불과 보름만에 집중근로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용자 편지 중 일부>

인간중심적인 교정 철학과 실천에는 공부뿐만 아니라 가족, 특히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교수의 남편은 교수와 만날 당시에도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없었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던 남편은 수용자들에게도 역시 편견을 가지지 않았다. 수용자들을 사랑한다는 교수의 말에 웃음으로 대답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남편한테 나는 수용자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냥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끄집어 낼 수 있는 그것이 모성애든 직원의 사명감이든 프로그램 담당자의 어떤 자기 자신의 소명감이든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그 사람들이 느끼게 이렇게 내가 느끼는 이런 만족감하고 설명 다르다고 할지라도 저는 좋았어요. 힘들면서도 즐거웠어요.”

많은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들에게 실망한다. 그들의 변화 가능성을 믿어주고 애정을 쏟았지만, 교정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재범을 통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경우가 많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수용자들의 재범은 교정공무원의 사명감과 소명의식 등을 저하시킨다. 교수 역시 이런 경험이 많았지만 그들의 재범을 배신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 그들이 사회에서 재범하지 않고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 대해 공감하려고 노력했다.

교정공무원으로서의 그녀의 길은 도상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회의감이 들고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에 그녀의 가치관처럼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녀에게 있어서 교정공무원의 실체는 묵시의 길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머나먼 교정의 길을 자긍심으로 지키기

교정시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양가적이다. 수용자들을 인권의 탐지자, 교정·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있지만, 교정시설을 기피시설, 필요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화된다는 것을 의심한다. 이는 언론매체를 통해 범죄자들의 재범, 누범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검사들은 물론이며 판사, 교정공무원들도 같은 생각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조지 폭력배를 전담했던 어느 은퇴 검사의 “결례는 뺑아도 행주가 될 수 없다”는 말처럼 비판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수는 인간의 변화에 대한 신뢰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정 정책의 효과를 믿었다. 정책의 효과는 100미터 달리기를 하듯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아니라 마라톤처럼 오랜 시간을 노력해야 하는 머나먼 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교수는 모든 수용자들이 사회구조나 모순, 부조리의 희생양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 인간적인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었다. 물론 연민의 정만으로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교정공무원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파는 상인이 돼 절망과 비관을 낙관으로 다시 칠하는 화가가 돼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교정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은 험난한 교정의 길을 지키는 촛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걸어온 성장사가 안쓰럽기는 한데 이 애들이 이런 것을 대처하는 능력이나 방법이라든지 좋은 교육이라든지 하다못해 경제적으로라도 먹고 사는 일이라도 편안해야 돼. 그게 모든 것이 다 불안한 상태인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니까 안에 그냥 그 왜곡된 성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마르고 고갈된 인생이 출소해서도 계속 그렇게 꼬인 인생이 뻗어도 들어올 수밖에 없겠지.”

“근데 절도는 사기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폼에 베인 습관이라. 근데 그걸 고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자기 상처로 알려져서 그렇게 장기 5년이고 10년이고 7년이고 이렇게 복용하는 사람들은 장기 복역자니까 교도소 내 좋은 교육을 줌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7. 사회 환원과 봉사의 실천

교수는 은퇴를 5년 앞둔 시점에서 교정대상을 받았다. 교정대상은 교정행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교정공무원 및 교정참여 인사·단체 등에 대해 연 1회 수여되며, 교정공무원 부문에서는 근정상, 성실상, 창의상, 교화상, 수범상으로 총 5명에게 수여된다.

그녀는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국가로부터 받은 안정적인 급여로 생활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했으며, 은퇴 후에는 연금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 자신은 받은 것에 대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은퇴 후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교정대상 6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교화부분, 봉사 많이 하기는 했죠. 제가 이제 한 5군데, K 지적장애인 그 다음에 L장애인 단체, 그 다음에 YWCA 그 다음에 평화로운 집 이렇게 홈스테이 엄마 역할 해주는 거기는 이제 우리 OO직원들 동아리에서 하는 거.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한 5군데 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자원봉사도 하지. 아무튼 여러 군데 하다 보니 다 기억나진 않지만 상황이 되면 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56세에 은퇴해 현재 s시에 살고 있다. 여타 은퇴자들처럼 여유롭게 삶을 즐기고 있지만, 일주일에 2~3회 미술관에서 미술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다. 미술관에는 작품을 해설하는 해설사도 있지만, 그녀는 미술품을 지키는 일을 한다. 현직 시절에는 수용자를 지켰지만 이제는 고가의 미술품을 지키는 것이다. 작품 해설사로 도전할 수도 있지만, 해설사를 거부하고 미술품을 지키는 이유는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봉사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교수는 자신의 교정공무원 생활이 화려한 각광을 받는 직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피웠기에 자신의 봉사 역시 은밀한 봉사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대학원 교육까지 받은 그녀가 미술 해설사 자격증을 준비

할 수도 있지만 영광스럽고 빛나는 자리는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있다. 자신의 교정공무원으로 삶은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무명씨로서의 헌신이었지만 그 자신이 비춘 빛은 자신과 관계 맺은 많은 수용자들의 가슴에 살아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스토아학파의 세네카(Seneca)의 표현처럼 “자신이 지니고 있는 횡불에서 불을 나눠줘도 그 불은 작아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빛 역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녀가 수용자들에게 밝혀준 빛은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개선의 편지로 전달된다. 다음의 편지는 교수가 받은 수많은 편지 중의 하나로 감사와 변화의 편지이다.

성교육을 통해 믿음이 조금 더 확고해졌고, 철없이, 때론 말의 무서움도 모른 채 내뿜던 저희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셨을 주입님을 보면서 많은 것도 느꼈고 확실히 얻은 것은 교정교화된 재향이던 성공이던 모든 것에 근본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이 일백상통이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주입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갈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수용자 편지 중에서>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 교정공무원의 직업 정체성과 직업소명의식 생성과 발달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이다. 연구결과 천형의 유배지 소록도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봄, 이기적 가족주의를 넘어 가족의 외연 확장, 젠더 저항이 젠더 민감성과 공감력으로 승화, 인간에 대한 신뢰로의 승화, 범죄와 사회의 분리 그리고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 머나먼 교정의 길을 자긍심으로 지키기, 사회 환원과 봉사의 실천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정공무원의 소명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절망과 때로는 교정기관이라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최악의 장소에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러티브 주인공은 자신 역시 좌절을 경험했고 소록도에서 극한의 절망을 보았지만 그 극한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굴했다. 이번 연구에서 두드러진 것은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기다림과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직업소명의식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는 직업소명의식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의미의 생성, 직무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성 등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소명의식은 직업에 대한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고 소진(신성원, 2009: 105)과 이직의도(이승우 & 남재성, 2020: 97) 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경우 그의 직업소명의식에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나타났으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간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재소자, 범죄자, 수용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자신의 이웃으로 수용자를 명명했다. 이웃이라는 그의 인식과 철학에는 직업소명의식은 사람들과 공동 세계를 구성하고 그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서 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공동의 생활 세계를 마련해가는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외부인들은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의 관계를 집행자와 집행을 받는 자, 상하관계의 권력관계로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정공무원과 수용자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관계이다. 이승주와 이윤호(2019)는 교정공무원의 하위문화 유형을 분석했는데, 교정공무원들은 교정 당국의 이념 수용, 동료 직원과의 상호작용, 재소자와의 상호작용과 함께 냉소적 직무태도를 하위문화 유형으로 보고했다.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동료 또는 수용자와의 상호작용은 교정시설이 법질서를 어긴 개인들을 가두고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 주인공 역시 교정시설을 우리 사회에서 고립된 징벌의 장소가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보았다. 교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지만 교정공무원과 수용자들이 같이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교정공무원들은 반은 수인이라는 표현은 교정공무원의 간혀 있음과 단조롭게 닫혀 있음을 빗대어 하는 말이지만 수용자가 아닌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정공무원의 직업 정체성 또는 직업소명의식은 교정공무원들의 직무와 삶의 만족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에게 긍정적으로 환류돼 그들의 삶을 바꾸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용자들은 자신이 범죄자로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면 저항하지만, 인간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믿으면 변화 의지와 행동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신규 및 보수 직무 교육과정에서 동료들은 물론 수용자들과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는 교육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직 정의로운 인간만이 불의를 미워할 수 있다는 말처럼 내러티브 주인공은 교정에서 지금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 여성 교정공무원에 대한 폄하, 인격 모독 등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했고 이를 극복했다. 이러한 젠더 저항은 단순한 여성으로서의 저항에 국한되지 않고 동료는 물론 수용자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지금까지 직업소명의식은 주로 소명의식을 지님으로서 유래되는 긍정적 직무 효과만을 다루었는데 소명은 정당한 저항에서도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저항은 수용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반인권적인 접근을 저해하는데 가장 큰 자산으로 활용됐다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 주인공은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했기에 수용자의 권리를 존중했다. 교정공무원의 지위가 이중적이듯이 수용자들의 지위 역시 이중적이다. 수용자들은 분명 국가 법질서를 어긴 개인들로서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또한 자신의 삶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요구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내러티브 주인공은 그 권리를 인정하고, 수용해 이를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발전시켜 나갔다.

현재 한국의 교정환경은 과거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수용자들의 인권이 보장돼 있다(박근영 & 이용주, 2020:111). 하지만 제도적 보장과 실무에서의 보장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지체 현상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들에게 인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사례와 실무 연습 등을 통한 상황별 맞춤형 교육이 돼야 한다.

교정공무원의 교정 실천 이념적 지향성은 처벌을 지지하는 입장과 수용자들의 교화와 개선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이창한, 2013:137; Robinson, Porporino & Simourd, 1997:60). 하지만 이러한 이념 지향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응보와 처벌 지향적 입장은 교정교화라는 보다 큰 관점에서 통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응보와 처벌의 궁극적인 목표도 범죄자의 재범방지과 재사회화를 교정교화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양자를 분리해 접근하는 것은 과거의 방식이며, 교정교화라는 큰 목표 안에서 처벌과 응보는 하나의 수단 또는 과정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정 현장에서는 교정교화의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더 많이 더 오랫동안 회자되기에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와 개선을 통한 교정·교화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교정관련 매체 또는 학술대회 등을 통해 사회와 공유해 희망의 교정에 대해 사회인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염병관리지원단위원」 위촉식 및 교정시설 현장 방문



일자·장소
7. 5.(화) 10:00, 서울동부구치소 중회의실

참석자
(교정본부) 교정본부장 등 3명
(교정기관)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명
(위촉위원) 외부위원 6명(위원장 최보율)

주요 내용
감염병관리지원단 위촉식 개최
서울동부구치소 내부 시설 참관 등

tvN 예능 <백패커> 촬영



기간·장소
7. 25.(월)~7. 26.(화),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 식당

방영 일시
8. 18.(목) 20:40

방송 내용
교정시설 소개, 출연진의 점심 식사 준비(약 200인분)
출연진과 교정공무원의 근무 관련 고충 대화 등

논산지소 교정위원의 날 행사



일자·장소 7. 7.(목), 18:00, 논산시

참석 인원 교정본부장, 대전지방교정청장, 교정위원 등 90여 명

주요 내용 우수활동 교정위원 감사패 수여 등

교정본부 & [주]CGV 영화 할인 제휴



대상
교정공무원(동반 3인 포함)
※ 기존 군인·경찰·소방공무원 할인 적용 → 교정공무원 포함

혜택
1인당 8~9천 원 이용(5천 원 이상 할인)
※ 주중 8천 원·주말 9천 원 이용, 매장 팝콘 등 2천 원 할인

이용방법
교정공제회(www.cma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쿠폰 발행

제휴기간
7. 1.(금)~12. 31.(토), 6개월간
※ 하반기 시행 후 이용 실적에 따라 6개월 단위 갱신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이동규

전입 직원 신고식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7월 11일 전입 직원 신고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할 가운데 진행됐다. 윤창식 청장 대행은 “공무원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구치소 / 교위 김승일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는 7월 1일 교정위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교화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교화 사업의 방향을 논의했으며, 우수위원 시상식과 다과회를 열었다.

안양교도소 / 교도 이승연

보라미 매장 환경 개선

안양교도소는 7월 15일 보라미 매장 환경 개선을 시행했다. 또한, 보라미 매장 위치 및 판매 제품 소개, 보라미몰 사이트 소개 등을 촬영해 유튜브 ‘교도소 24시’ 채널에 영상을 게시해 교도작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할 예정이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윤희수

민원인 쉼터 포토존 조성

수원구치소는 7월 13일 시설 내 사진 촬영으로 인한 보안상 문제를 방지하고 민원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민원인 쉼터에 포토존을 조성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아동복지시설전회 세움 참관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7월 14일 사단법인 아동복지시설전회 세움 직원들의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김영식 소장은 “수용자 자녀들을 지원하는 아동복지 지원 전문단체의 교정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기관의 역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종국

보라미 준법 교실 실시

인천구치소는 7월 25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준법정신 함양을 통한 청소년 비행 예방 및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교정시설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보라미 준법 교실을 실시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사 조도현

육군 제7688부대 213보병여단 참관 실시

서울남부구치소는 7월 21일 육군 제7688부대 213보병여단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기관 현황 및 시설 안내 등을 통해 교정시설의 이해를 높였으며, 방호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공명환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7월 6일 대회의실에서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피지컬 케어 및 상담전문가의 스트레스 진단이 진행됐으며, 교정공무원의 심리적 위기를 극복하고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채병준

제48대 의정부교도소장 취임식 개최

의정부교도소는 7월 4일 제48대 의정부교도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재술 소장은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주교도소 / 교사 홍재성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여주교도소는 7월 21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최진규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소중한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이동휘

사랑의 오피콜 행사 개최

서울남부교도소는 7월 12일 한국범죄방지재단과 함께 불우 수용자 가족 돕기 일환으로 ‘사랑의 오피콜’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한국범죄방지재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취업지원협의회 정기회의 및 채용면접 실시

춘천교도소는 7월 5일 상반기 취업지원협의회 정기회의 및 채용면접을 실시했다. 정기회의에서는 출소자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취업업

교육실에서는 수용자 25명 대상으로 채용면접을 실시했다.

원주교도소 / 교위 김승현

원주시 관내 청소년 참관 실시

원주교도소는 7월 7일 원주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도소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참관에는 해피마인드 심리치료센터 성유라 원장과 관내 청소년 등 14명이 참석해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교정시설을 둘러보는 등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준영

전입 직원 신고식 개최

강릉교도소는 7월 11일 교감 장중억 등 10명에 대한 전입 직원 신고식을 개최했다. 김경화 소장은 “교정공무원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을 기하고, 교정교화와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월교도소 / 교도 김준일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영월교도소는 7월 13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렴 릴레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 과 주무 교감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이후 각 과 별로 교육을 실시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도 성명제

합창단 초청공연 개최

강원북부교도소는 7월 11일 정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25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초청해 공연을 개최했다. 허만혁 소장은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와 주신 정신여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소감을 밝혔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조상범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7월 18일 시설서기시보 김태현에 대한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정진 지소장은 “공직 사회에 내디딘 첫 발걸음을 축하하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소망교도소 / 9직급 전성렬

초음파 진단기 도입 실시

소망교도소는 7월 6일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초음파 진단기 도입을 실시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자 의료처우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호찬

교정기관 촉구대회 대표자회의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2022년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촉구대회 개최를 위해 7월 6일 대구청 소속기관 대표자 18명과 대회 운영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방지영

직원 복지 물품 지급

대구교도소는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폭염으로 지친 직원들을 위해 시원한 팔빙수와 우유를 지급했다. 오광운 소장은 “무더운 날씨에 힘들고 지친 직원들이 시원한 팔빙수를 먹고, 더위를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부산구치소 / 교사 김치호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부산구치소는 7월 1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한시 임기제 공개채용에 합격한 신규 임용 공무원 1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박호서 소장은 “코로나19 재유행 예방과 무더운 여름에 찾아오는 식중독 예방 등 특히 위생·청결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강중구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7월 7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를 위한 생수 20,000병을 기증받았다. 매년 수용자를 위해 기증품을 준비한 교정협의회가 올해는 혹서기 대비를 위한 생수를 기증했다.

창원교도소 / 교도 강정훈

수용자 물품 기증

창원교도소는 7월 7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20,000병을 기증받았다.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건강한 수용 생활에 힘쓰고 있다. 이환수 교정협의회장은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건강한 여름 나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교도소 / 교사 이재운

수용자 물품 기증

부산교도소는 7월 14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40,000병을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 재유행에 접어든 엄중한 상황에 잠마와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여름을 건강히 보낼 수 있도록 마련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김병수

제16대 포항교도소장 취임식 개최

포항교도소는 7월 14일 제16대 포항교도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장원재 소장은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법 집행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인권이라는 기본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교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모범공무원 시상식 개최

진주교도소는 7월 6일 2022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신강환 교감에게 모범공무원증을 전달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신강환 교감은 재직기간 동안 법질서 확립 및 수용자 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인정됐다.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수용자 물품 기증

대구구치소는 7월 6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22,400병을 기증받았다. 김시승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기증의 뜻을 전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윤시현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7월 15일 하나산업 임창빈 대표로부터 수용자를 위한 아이스크림 500개를 기증받았다. 임창빈 대표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수용자들이 코로나19와 더위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안동교도소 / 교도 신동관

모범공무원 시상식 개최

안동교도소는 7월 4일 모범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모범공무원으로는 총무과 대체복무팀 권오성 교감이 선정됐다. 육근우 소장은 “33년간 교정 공무원으로서 헌신한 결과라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조영준

모범공무원 시상식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7월 6일 모범공무원 및 적극행정 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모범공무원에는 은경식 교감, 적극행정 공무원에는 최덕식 교위가 선정됐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사 김영호

현대자동차 하계 무상점검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7월 7일 현대자동차 하계 무상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행복한 직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코로나19 및 업무로 인해 바쁜 와중에 간편하게 직장 내에서 차량 점검을 할 수 있어 직원들의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됐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윤정수

우수 직원 격려금 전달식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7월 7일 우수 직원으로 선

정된 김석찬 교위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석찬 교위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조사업무를 시행하고 수용 질서 확립 및 직원 사기 진작에 기여한 바가 커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울산구치소 / 교위 황정목

제26대 울산구치소장 취임식 개최

울산구치소는 7월 4일 제26대 울산구치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영광 소장은 “선진 산업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사회에 위로와 힘이 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제 48대 경주교도소장 취임식 개최

경주교도소는 7월 4일 제48대 경주교도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최재우 소장은 “수용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수용자 물품 기증

통영구치소는 7월 13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닭 450마리를 기증받았으며, 교정위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김진아 소장은 “이번 기증을 통해 폭염에 지친 수용자들이 활력을 되찾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밀양구치소 / 교위 양원선

검찰총장 표창 전수식 개최

밀양구치소는 7월 4일 조광래 교감에게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 검찰총장 표창을 전수했다. 조광래 교감은 고충처리팀장으로 조사 과정에서 수시 상담을 통해 수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 발전에 기여했다. 조광래 교감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상주교도소는 7월 4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상주교도소는 혈액 수급 위기 극복과 헌혈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체 헌혈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이경민

야구대회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7월 23일 대전 덕암야구장에서 제10회 법무부장관기 예선 대전지방교정청 야구대회를 개최했다.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야구대회는 교정공무원의 친목 도모 및 건강 증진 등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시간이 됐다.



대전교도소 / 교위 이호현

故 김동민 교감 순직 18주기 추모행사 실시

대전교도소는 7월 15일 소내 순직교도관 추모비 앞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故 김동민 교감 순직 18주기 추모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2004년 수용자가 휘두른 둔기에 희생된故 김동민 교감에 대한 명복을 빌기 위해 거행됐다.



청주교도소 / 교위 오오한

모범공무원 시상식 개최

청주교도소는 7월 4일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교위 김왕수와 6월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교위 김명성, 교위 이동찬, 교위 윤병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양원동 소장은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천안교도소 / 교도 곽태업

응급환자 조치 훈련 실시

천안교도소는 7월 12일 온열환자 발생 대비 응급환자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혹서기에 온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천안교도소 내 대운동장에서 응급환자 조치 및 후송 절차까지 실제 훈련으로 진행됐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조은희

외부 휴게 공간 완공 행사 개최

청주여자교도소는 7월 1일 외부 휴게 공간의 완공 행사를 개최했다. 강기천 소장은 “이번 휴게 공간이 직원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 직원 간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주교도소 / 교위 김성준

교정행정협의회 개최

공주교도소는 7월 7일 교정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정행정협의회는 현장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소했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우경

제23대 충주구치소장 취임식 개최

충주구치소는 7월 4일 제23대 충주구치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한 주기남 소장은 “우리 교정시설에도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굳건히 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따뜻하고,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홍성교도소 / 교도 김희빈

제47대 홍성교도소장 취임식 개최

홍성교도소는 7월 4일 제47대 홍성교도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한 박석규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치행정을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법 집행과 원칙적인 근무 자세로 수용 질서를 확립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을 만들어 더 행복한 홍성교도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미술 작품 기증

천안개방교도소는 7월 8일 (주)서울 옥선으로부터 유명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 20점을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은 수용자들의 정서적 안정 및 심성 순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뜻깊은 선물이 됐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수용자 물품 기증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7월 5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를 위한 생수 3,000개를 기증받았다. 김병호 소장은 “수용자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수용 생활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김현수

교정본부장 정책현장 방문

유병철 교정본부장은 7월 7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를 방문해 정책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유병철 본부장은 코로나19 고위험군 수용자 중점관리 체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수용동 증축 등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교정기관 NEWS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김인근

청렴 유적지 탐방

광주지방교정청은 7월 6일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이해 및 실천을 위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이 서려 있는 다산초당, 백련사, 다산박물관 등 청렴 유적지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렴 유적지 탐방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든지 다시 생각해 보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광주교도소 / 교사 전은주

직원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광주교도소는 7월 1일 직원들의 복지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보안청사 직원 체력단련실의 리모델링을 완공했다. 이번 사업은 직원들의 체력 증진 및 직원들의 단합과 격려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대체복무요원 전입 신고식 개최

전주교도소는 7월 4일 대체복무요원 20명을 대상으로 전입 신고식을 개최했다. 대체복무요원은 2주 동안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을 수료한 후 일선에 배치될 계획이다. 신동윤

소장은 “교정행정의 일원이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대체복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순천교도소는 7월 13일 소내 대회의실에서 부서 대표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 방지법 권역별 교육을 수료한 백금태 소장이 직접 부서대표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릴레이 2단계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수용자 물품 기증

목포교도소는 7월 7일 천주교 광주 대교구로부터 수용자를 위한 아이스크림을 기증받았다. 최국진 소장은 “무더위로 힘든 수용자들을 위해 기증을 결정하신 천주교 광주 대교구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교도소 / 교위 우영미

수용자 물품 기증

군산교도소는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의 건강한 수용 생활을 지원하는 생수 10,000병을 기증받았다. 이남구 소장은 “얼음 생수는 무더위로 힘든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심신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교정협의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제주교도소 / 교사 고동성

수용자 물품 기증

제주교도소는 7월 14일 천주교 제주교구청으로부터 생닭 반 마리 700개를 기증받았다. 기증받

은 생닭은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초복에 맞춰 삼계탕으로 만들어 제공했다. 이효선 소장은 “기증해 주신 생닭은 수용자들이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장흥교도소 / 교도 김민석

정부정책 소통교육 실시

장흥교도소는 7월 21일 직원 약 2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정책 소통교육을 실시했다. 민 강의연구소 대표 하수민 강사의 지도 아래 적극행정의 의미와 내용, 역사 교육 및 사례 공유를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장흥교도소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해결 지향적이고 국민 친화적인 교정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호민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해남교도소는 7월 11일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이수한 최종일 소장이 월례회에 참석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교육을 실시했으며, 직원들에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정읍교도소 / 교사 박승현

사진 콘테스트 우수작 시상식 개최

정읍교도소는 7월 4일 '사진 콘테스트' 우수작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진 콘테스트는 직장 내 즐거움을 찾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의 가치 아래 실시했으며, 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Re:mind

모범 공무원



인천구치소 교위 구형우

구형우 교위는 1999년 임용 후 약 23년 동안 재직하면서 강직한 성품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의료과에서 의료처우 관련 민원 전문 담당자로 진정·청원 및 각종 민원 전화를 응대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처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친절한 응대 및 답변을 통한 민원 해소로 교정행정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김천소년교도소 교사 박상덕

박상덕 교사는 보안과 근무자로 지난 6월 25일 소년 수용자의 자살 기도를 저지해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박상덕 교사는 조사·징벌 수용동 근무 중 교육 거부로 조사 거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관복 상의 1개, 수건 2장 등을 연결한 끈을 이용해 자살 시도 중인 것을 발견했다. 이후 즉시 TRS로 상황을 전파함과 동시에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가 목에 감은 끈을 풀고 제지하는 등 수용자 자살 사고를 예방했다.



충주구치소 교위 한현경

한현경 교위는 인권 및 소송수행 업무를 수행하며 중점 관리 대상자 등 특이 수용자에 대한 수시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정교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상습 규율 위반 수용자와 상담 중 입소 전 사회에서 소외당하며 살아온 환경에 대한 불만을 수시로 표출하는 수용자에 대해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통해 심신 안정을 도모해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광주지방교정청 운전주사보 김종배

김종배 운전주사보는 법무호송팀 근무자로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안전한 호송 업무 이행을 위해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며, 일일 평균 560km에 이르는 호송버스를 운행해 법무호송팀 설립 취지인 예산 절감 및 조속한 이송 시행에 따른 과밀수용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독자 퀴즈

숨은 그림 찾기

아래 그림 속에 숨겨진 그림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숨은 그림 10개를 찾아 정답을 보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구두
- 컵
- 오리
- 돛단배
- 우산
- 생선 가시
- 악어
- 유리잔
- 뼈다귀
- 모과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15@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 퀴즈 및 이벤트 참여자 혜택 해피머니 1만 원권 발송



QR코드를 통해서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될까?

너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니까

청년 구직 활동 지원 법령 정비



법제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를 통해
자격 및 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지도사 등 양성과정의 실무경력 기준을 완화합니다!

32개 대통령령 42개 정비과제 확정 (통합입법예고센터 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청년관련 불편법령(창업일자리 등)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법제처에 신고하세요!





교정본부

보라미몰은

전국 수용자들이 생산하는 교도작업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직업훈련 및 사회정착금 등으로 사용해 수용자의 안정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에 기여합니다.

OK

수용자가 희망을 담아 만든 교정작품 쇼핑몰

보라미몰

corrections-mall.net



STORE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다!

도자기, 대형가구, 생활용품, 공예품 등 수용자들이 사회 복귀에 대한 희망을 담아 손수 만든 120여 종의 제품이 한 곳에.

보라미몰에는 특별함이 있다!

하나, 저렴한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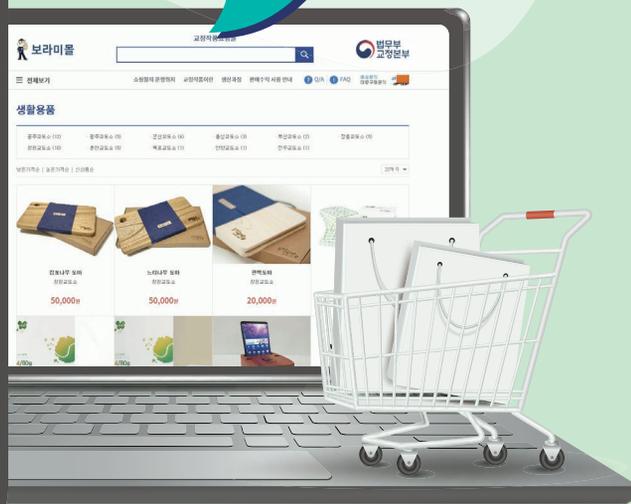
이윤 추구보다 수용자의 근로 정신 및 사회적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저렴합니다.

둘, 우수한 품질

검증된 원재료를 사용하며 수작업으로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튼튼하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셋, 사회적 가치 실현

수용자의 근로 의식 함양과 기술 습득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정착에 기여합니다.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QR코드를 스캔하면
보라미몰이 내 손안에!